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한 군인교회 양육선교 연구
: 군인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이산호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2년 5월

Copyright©2022 San Ho Lee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Nurturing mission of Military Church through One to One Bible Study
: A Case Study of Military Churches in Korea

San Ho Lee

Yongin, Gyeonggi-do, Korea

Recently, the Military Church reflected on the Military Mission Vision 2020 Action Movement and declared the Military Mission Vision 2030 as a new military mission vision, focusing on the slogan "One Soul to Christ!" The main content is to emphasize the nurturing of military believers by transforming the mission paradigm centered on quantitative growth into qualitative growth. Of course, there has been a nurturing program so far, but it was not enough to release it as a nurturing program optimized for the situation of the military church in Korea.

Thus, in this paper, I studied nurturing programs optimized for military churches. In particular, the purpose is to propose a one to one nurturing program for the growth of faith of military church members. The one to one nurturing program is optimized for the situation of the military church. This is because there is little risk of personal stories being rumored, and you can focus on the growth of a person's faith through interactive communication.

To this end, the Tong Bible School Step 2. Mind Training course was reorganized into a one to one nurturing program. The mind training course allows readers to read the entire story of the Bible from the perspective of God's heart, through which readers can understand and realize God's heart.

And James Fowler's theory of faith development was applied to verify that the soldiers in the program achieved the growth of faith. It is not easy to enter the fourth stage of faith, which overcomes the third stage, which is a conventional and compliant faith, and establishes a solid identity. Christian youths who leave their families and are exposed to the new environment of the military naturally face an identity crisis as Christians. It is hoped that through the one-to-one nurturing program, they will grow into healthy Christians who have established their identity as Christians and be reborn as workers in the Korean church in the future.

국문초록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한 군인교회 양육선교 연구
: 군인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이산호

선봉대교회, 경기 용인, 한국

최근 군인교회는 군 선교 비전 2020 실천운동을 반성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표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군 선교 비전으로서 ‘군 선교 비전 2030’ 을 선포했다. 양적 성장 중심의 선교 패러다임을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환하여 군인 신자의 양육을 강조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물론 그동안 양육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군인교회의 상황에 최적화된 양육프로그램으로 내놓기에는 궁색하기만 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군인교회에 최적화된 양육프로그램을 연구했다. 특히, 군인교회 신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은 군인교회의 상황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새어나갈 위험이 적고,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한 사람의 신앙 성장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통(通)성경학교 Step2. 『마음 훈련』 과정을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으로 재구성했다. 마음 훈련 과정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독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군인교회 용사들이 실제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을 적용하였다. 인습적이고, 순응적인 신앙인 3단계를 극복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단단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4단계로의 신앙단계 진입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가족을 떠나 군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 기독교청년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된다.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미래 한국교회의 일꾼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 I 장

서 론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연구자가 속한 한국교회 내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은 2020년 105회기 총회 보고서를 통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교회학교 학생수의 변동사항을 보고했다.¹ 보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그 증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2010년 → 2019년 통계 (명)	증 감
영아부 (0~3세)	18,305 → 15,206	16.9% 감소
유아부 (4~5세)	24,571 → 19,872	19.1% 감소
유치부 (6~7세)	67,378 → 45,654	32.2% 감소
유년부 (8~9세)	64,232 → 43,461	32.3% 감소
초등부 (10~11세)	74,327 → 48,807	34.3% 감소
소년부 (12~13세)	89,900 → 52,427	41.6% 감소

¹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104회기 총회회의록,” (2021.10), 580~585.

중고등부 (14세~19세)	188,304 → 115,025	38.9% 감소
----------------	-------------------	----------

<표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교회학교의 10년간 학생 수 통계>

교회학교 학생 수가 527,017명에서 340,452명으로 186,565명이 감소했다. 무려 35.4%가 감소한 수치다. <표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아부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갈수록 그 감소 추세가 더 가파르다. 절대적인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청년대학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0년 159,358명이던 것이 2019년에는 127,108명으로 20.2% 감소했다. 대학별 선교단체들의 적극적인 캠퍼스 선교활동과 청년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20%의 감소는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 해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한편, 기독 청년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던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회학교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 추세가 가파라지는 양태를 보면 기독 청년들의 숫자 감소는 청년들의 교회에서의 이탈을 뜻한다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낮은 출산율로 인한 절대적인 청년의 수가 감소한 것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교회에 출석하던 청년들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군인교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용사² 중의 상당수는 예전에 교회에 출석해 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다. 이 중에는

² 한국군에서는 최근 장교와 부사관 이외의 군인들을 지칭할 때, ‘병사’ 라는 호칭 대신에 존칭어인 ‘용사’ 라는 호칭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5~6년 이상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아왔던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등 상위 학교로 진학하고 학업과 진로 등의 바쁜 일상 속에서 교회와 멀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탈을 막지 못한 한국교회의 신앙교육 시스템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논외로 한다. 수많은 청년이 모이는 군인교회에서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연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통계 자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교회에 출석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다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군인교회라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군 선교를 반성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교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온 전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군인교회에서는 어떠한 선교적인 노력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군인교회에서는 ‘군 선교 비전 2020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한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서 군인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신자들이 없는데 군종장교가 과연 필요한가? 민간 인력 또는 군무원 제도로 대체해도 되는 것 아닌가? 등 군종장교 제도의 존립 문제까지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군인교회에는 용사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연구자가 군인교회를 처음 담당했던 15년 전에는 평균 150명 이상이 모였던 여단급 교회에 최근에는 2~30명 남짓의 숫자만 모일 뿐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의 문제의식은 누구나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타개할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일반 교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역교회 역시 몇몇 대형교회를 제외하고는 이미 청년 선교의 기능을 많이 잃었다. 또한 CCC, IVF, 네비게이토, UBF, DFC, SFC, 예수전도단 등 대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선교단체들의 학원 선교 역시 이전과 비교해 힘을 많이 잃었다. 또, 2017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종교 권면이 문제가 되어 징계까지 내려진 이후로,³ 초중고 학교에서의 선교적 활동 역시 종교 강요라는 명목으로 금지된 실정이다.

연구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은 한국교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 선교의 활성화를 꼽는다. 대한민국의 군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종장교에 의한 선교활동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군종장교 제도를 두고, 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군종장교에 의한 선교활동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한 사람의 장병일지라도 종교적인 요구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지원을 하게 할 뿐이다.

문제는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청년 선교의 기회로서 군 선교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군 선교 방향을 반성하고, 국방개혁2.0⁴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군 선교의 효과적인 방안의 연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군 선교 비전 2020 실천운동을 반성하고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군 선교 비전 2030의 흐름 속에서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을 그 대안적 전략으로 제안하고자 했다. 특히,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과정을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실제 군인교회에 적용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하고자 했다. 군 선교

³ 이사야, “강원도교육청, 특정종교 편향 교육 교사 징계 논란,” *국민일보*, 2017년 1월 17일자, 25.

⁴ 통계청에서 발행한 「2020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27만여 명인 것을 알 수 있다. 10여 년 전 2009년 출생아 수인 44만여 명과 비교하면, 40% 정도나 급감한 수치이다. 출산을 저하는 자연스럽게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특히 징집을 통한 의무 군 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출산을 저하가 곧바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실질적인 병력의 감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을 통해 병력의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 최첨단 무기의 도입과 군 인력구조 개혁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장의 선교사이자, 목사로서 미래 한국교회를 준비하는 유일한 대안은 군인교회를 통한 건강한 성도의 양성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대는 만 18세 이상 남성 대부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선교 현장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의 방법

‘양육선교’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한 군 선교 방법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한국 교회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해온 방법이지만 양적인 성장 위주로 사역을 진행해왔던 군 선교 현장에서는 다소 낮은 방법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선교적 돌파구로서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군인 교회의 성장 방안을 논증할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대략적이라도 알고 있다.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군 선교 현장에서 만난 용사 중에는 군인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은, 이들이 군인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와 더불어 군인 교회 용사신우의 사회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교회의 ‘청년부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군인 교회 청년들의 신앙 성장이야말로 한국교회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이다. 먼저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의 장점을 제시하고, 이것이 일터와 교회의 구성원이 같은 군인 교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안적인 군 선교의 방안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임을 강조할 것이다.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으로는,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과정을 일대일 양육용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할 것이다. 20개로 구성된 마음 훈련 과정을 열한 번의 만남으로 구조화하고 각 만남의 성경 이야기와 주제들을 정리할 것이다.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통(通)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실제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발달 이론을 적용할 것이다. 제임스 파울러에 의하면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은 대부분 신앙발달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경계에 있다고 한다. 보통 이 때부터 4단계 진입이 가능해지는데, 주입되고 학습된 신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3단계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비판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4단계의 진입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군인교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군인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신앙발달 3단계에서 4단계로 진입한 증거들을 제시할 것이다.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과정은, 전체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했다. 김택조는 이야기를 통한 성경교육의 유용성을 논증한 논문에서 통(通)성경학교 성경공부 방법의 탁월성을 논증한 바 있다.⁵ 또한 폴 리피르의 Narrative Identity 이론을 소그룹 성경공부에 적용한 강미량의 소논문⁶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의 독자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인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⁵ 김택조, “이야기를 통한 성경과 교리 교육,” (박사학위 논문, 드루대학교 신학대학원, 2020).

⁶ 강미량, “리피르의 Narrative Identity 이론의 소그룹 성경공부에서의 적용,” *한국개혁신학* vol.29, 2011.

회복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군인교회의 용사들은 순응적 신앙단계인 3단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단계의 신앙발달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레너드 스윗은 그의 책, *넛지 전도*에서 현대 교회에 필요한 선교전략은, “사람들을 강제로 앉히거나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밀어서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수확하는 것보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도록(막 4:26~27, 31~32)’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⁷ 용사들이 자연스럽게 군인 교회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양적 성장 일로의 선교 전략을 탈피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일대일 양육 선교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범위

개개인의 신앙의 발달단계를 어떤 수치로 측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자는 양육선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이론으로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의 발달단계 이론을 적용하였다. 파울러는 신앙의 발달단계 이론을 통해 ‘인간 발달’을 ‘신앙 발달’로 연결지음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의 신앙을 객관화했다는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오상영은, 파울러의 신앙의 발달단계 이론이 “구조주의적 접근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신앙의 내용, 대상, 본질의 중요성을 소홀히 했다”면서 “기독교적인 신앙을 양육, 성숙,

⁷ 레너드 스윗, *넛지 전도* 유정희 역 (서울 : 두란노, 2014), 21~22.

심화시키기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⁸

파울러의 이론에서 말하는 신앙의 대상이 반드시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의 발달단계 이론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본 논문의 논지에서 벗어난다. 연구자는 신앙의 발달단계 이론을 적용하여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용사들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사실의 단서를 찾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다. 파울러는 신앙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후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가 한 사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확인, 격려, 안내, 그리고 모범을 제공하는 방법이라는 의미”이다.⁹ 파울러도 지적했듯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전의 신앙단계들을 반복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전의 신앙단계들을 반복할 때 후원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군인교회가 이러한 ‘후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일대일 양육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은 조병호의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과정을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제안할 것이다. 통(通)성경학교는 강의와 소그룹토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경통독의 기쁨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왔다. 성경을 파편화된 이야기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읽어갈 수 있도록 총 7개의 STEP으로 구성하였는데, Pre-Step 1. 그 순간, Pre-Step 2. 성경과 영성, Step 1.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7개 질문 중심의 나라 이야기), Step 2. 하나님의 마음(66권 경전을 통(通)한 하나님의 심정

⁸ 오상영, “파울러의 구조주의적 신앙발달 모형의 한계와 수정,” *기독교교육논총* 17, (2008), 249.

⁹ 제임스 파울러, *신앙의 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446.

이야기), Step 3. 성경 줄기(40개의 성경 줄기 이야기), Step 4. 성경을 통(通)한 기도(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이야기), Step 5. 유대인과 패밀리 스쿨(전도 이야기)가 그것이다.¹⁰ 본 논문에서는 Step 2. 하나님의 마음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볼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제임스 파울리의 신앙발달 3단계인 ‘인습적 신앙’의 단계를 극복하고 4단계 ‘반성적 신앙’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이룬 군인교회의 용사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건강한 리더 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¹⁰ 조병호, *통(通)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9), 14~15

제 II 장

최근 군 선교 전략의 이해

‘군 선교 비전 2020 실천운동’의 평가

한국의 개신교는 2018년을 기준으로 총 374개 이상의 교단이 존재한다.¹¹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협력한다는 것은 각 교단의 이해 관계를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단들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존재했는데 1996년에 제시된 ‘군 선교 비전2020’ 운동이었다. 1,004개의 군인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세례식을 통해 다수의 기독교인을 양산하고, 이들을 4만여 개의 민간 교회로 연결하여 2020년까지 대략 3,700만 명, 전 국민의 75%를 기독교 신자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전 합참의장 이필섭 장로(예비역 대장)가 제안한 것으로, 매년 훈련소 등 군인교회 세례식을 통해 세워진 장병 22만여 명의 세례교인과 입대 전에 세례를 받은 5만여 명의 장병을 합해 25만여 명을 사회로 파송한다는 것이었다. 25만여 명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25년간 625만 명이 될 것이며, 이들이 부모, 친구, 배우자, 자녀 등 최소 3명만 전도해도 625만 명의 네 배인 2,500만 명이 되는데, 기존의 기독교 신자인 1,200만 명과 합하면, 32,700만 명이 된다. 이것은 당시 대한민국

¹¹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906-01), 108~118

기준으로 전 국민의 75% 수준이다.¹²

이 원대한 계획에 주요 교단이 참여했고,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군 선교 비전 2020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군인교회에서 양성되는 연간 세례 장병의 숫자가 18만 명 수준을 유지했고,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군인교회의 세례 장병 숫자가 194만여 명에 이르렀으며¹³, 1992년부터 2018년까지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서만 167만여 명의 훈련병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¹⁴

하지만 목표했던 2020년이 2년이나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오히려 교인 수의 급감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연구자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의 21년 106회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교인 수 2,506,985명에서 2020년 2,392,919명으로 1년 사이에 114,066명이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최근 10년 교세 통계 변동사항을 확인해 봐도, 2014년에만 한시적으로 1,600명이 증가했을 뿐 매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2,852,215명이었던 교인 수는 2020년 2,392,919명을 기록하며 총 46만여 명이나 감소했다.¹⁶ 이것은 비단 특정한 몇몇 교단의 상황만이 아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과 함께 가장 많은 교인 수를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의 교인 수 역시 2010년 2,953,116명에서 2020년 2,382,804명으로 57만여 명이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¹⁷

¹² 손동준, “한국교회가 그랬던 2020년... 얼마나 실현됐을까,” *기독교연합신문*, 2020년 1월 12일자, 6면

¹³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미래 출석교인 양육 VIP가족전도*(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8), 48

¹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군경교정선교부, *군 선교 백서*(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20), 203

¹⁵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기 총회 보고서*, 659.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4_03&wr_id=133#mw_basic (2022년 2월 2일 접속)

¹⁶ Ibid., 660.

¹⁷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홈페이지, “교단 현황-연도별 교단 현황”

http://gapck.org/sub_01/sub02_02.asp?menu=menu2 (2022년 2월 2일 접속)

주연중은 한국군선교신학회에 투고한 논문 ‘군 선교 비전2020 운동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례는 그 다음인데, 본말이 전도되어 오히려 복음보다 세례 인원 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또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¹⁸ 군 선교 비전2020의 실패의 원인으로 양적인 효과, 즉 신자 장병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군인교회’를 생각할 때, 자동으로 떠올리는 것은 ‘초코파이’ 일 것이다. 의무복무제도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 국민을 징집하여 군대로 보낸다. 강제로 군대에 들어온 징집병들에게 이 의무적 기간은 고통스럽고 고된 시간이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이 낯설고 고통스럽다. 특히, 5주간의 신병훈련 과정에서는 군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음식만 섭취하기 때문에 입에 단 음식 섭취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초코파이’와 같은 단맛의 간식은 최고의 선호식품이 된다.

교회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훈련병들에게는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지급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수없이 많은 훈련병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만의 방법은 아니었다. 타 종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초코파이와 탄산음료 등으로 간식의 질을 높이고 양을 늘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누가 더 좋은 간식을 주느냐!’는 종교 간의 ‘간식 전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병들은 종교적인 가르침과 본질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간식 등의 이차적 이득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더군다나 교회의 경우, 세례를 받으면 더 많은 선물과 간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결단과

¹⁸ 주연중,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 *한국군선교신학회* 19, 25.

회개 없이도 수없이 많은 훈련병이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군인교회에서 받는 세례를 ‘초코파이 세례’라고 비하하기도 한다.

간식 이외의 또 다른 방법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의 각 종교행사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장병들에게 휴가증을 주기 위해 상점¹⁹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종교행사 참석 마일리지 제도라고 이름 붙였다. 항공사 이용의 마일리지 제도처럼 출석 현황을 누적 적용해서 상점을 주고, 일정 점수가 채워지면 포상휴가증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양적 성장의 대성공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는 소위 특권 계층들의 갑질이 크게 이슈화되었고, 당사자들은 국민의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런 분위기는 국가 조직의 규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군(軍)이 그렇다. ‘무종교도 종교다!’라는 전제 속에서 종교시설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상점을 주는 것은 비종교인들의 권리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종교행사 참석으로 인한 상점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러자 곧바로 나타난 현상이 종교행사에 출석하는 장병들의 수가 1/2~1/3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러한 시도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이득으로 당장의 효과를 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군 선교 초반에 장병들을 반강제적으로 참석시킨 종교행사는 제국주의적 선교방식²⁰과 다르지 않다. 또한

¹⁹ 일정한 점수의 상점을 획득하면 휴가증이 주어진다.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²⁰ “기독교 선교는 역사적으로 폭력적 방법을 사용해 왔고 이를 정당화해왔다. 물론 이러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기초한 개종 지향적 모델을 비판하며 설득과 교육을 통한 비폭력적 대안을 주창하던 소수의 선교사들과 신학자들도 존재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다가올 세계의 종말 전에 비기독교적 종교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폭력에 의한 선교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김신, “서구제국주의 선교의 인식론적 한계비판과 공존의 선교 가능성 모색,”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9), 31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차적 이득의 제공 역시 마찬가지다. 겉으로 폭력적이지 않았을 뿐, 이차적 이득을 수단으로 한 강제적인 선교 전략이었다.

물론, 이런 방식은 비종교인들을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접촉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 선교는 거기에서 멈춰져 있다. 매우 훌륭한 접촉점은 만들었으나 다음 단계가 없다. 레너드 스윗은 “전도의 생명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역설하며 “전도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여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²¹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양적인 성장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다.

군 선교 비전 2030 : 양육 중심의 선교로 전환

1996년부터 25년 동안 이어져 온 군 선교 비전 2020 실천운동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다. 육, 해, 공군 군인교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²²는 군 선교 비전 2020 실천운동을 통해서 이룩한 선교적 성과와 더불어 양적 성장 일로로 치달았던 선교 전략의 부족함을 반성하며 새롭게 ‘군 선교 비전 2030’을 선포했다. 비전 2030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세례분과, 전도/양육분과, 파송분과, 홍보분과로 조직을 세분화하여 “한 영혼을

²¹ 스윗, *넷지 전도*, 19.

²² MEAK(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는 국방부 인준 기독교 군중활동 및 사업 후원 공식 대표기관이다.

그리스도께로, 백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라는 표어를 내걸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되새겼다. 비전 2030 선교 전략의 핵심은 기독교인의 대량 양산 중심에서 한 영혼에 집중하는 양육 중심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²³ 특히, 전도와 양육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분과로 정한 것은 전도와 양육이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찾고, 양육을 통해 새로운 기독교인을 재생산할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을 갖춘 성도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것은 군인교회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비롯한 군 선교 비전 2030 추진본부 역시 새로운 군 선교의 전략에 있어서 양육의 중요성을 절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양육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성경공부와 양육프로그램이 제시되었지만 군인 교회에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군종목사를 포함한 군인교회의 사역자들 사이의 공감대의 부족이나 군종목사가 속한 교단의 신학적 배경과 성향, 1~2년에 불과한 군인교회의 사역 주기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제시된 군인교회의 성경공부 방법이 군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것임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軍)은 급변하는데 군 선교의 방식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다. 최근에는 용사들의 월급이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여유도 생겨서 군 생활 중에 ‘초코파이’ 때문에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다. 간식의 질을 높여서 제공해도 그것 때문에 군인교회의 주일예배에 출석하지는

²³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홈페이지, “비전2030실천운동 소개”,
<http://v2020.or.kr/home/meak2020/> (2022년 2월 3일 접속)

않는다. 더군다나 최근 군(軍)은 병력 감축이라는 매우 급격한 변화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군(軍)의 최근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선교의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제 III 장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한 양육선교

양육선교의 필요성

앞서 밝힌 대로 지금까지의 군 선교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의 핵심은 양육을 통한 신자화(信者化) 과정이 열악했다는 것이다. 훈련소와 신병교육대의 교회에서 대량으로 행해진 세례는 겉으로 보기에 큰 성과처럼 보였지만 3~4주에 걸쳐서 집단으로 행해지는 강의식 세례 교육, 신병 교육을 마친 후에 배치된 부대 교회에서의 부실한 양육시스템 등으로, 화려해 보이는 군 선교의 열매는 속이 텅 빈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다.

박충은 그의 책 *욕쟁이 예수*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회심을 강조했다. 그는 “회심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회심이어야 한다”²⁴고 역설하면서 “삶의 방식에 대한 절절한 통회와 자복이 없는 것을 진정한 회개로 볼 수 없다”²⁵고 강조했다. 또한 식민지를 건설하고 수탈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제국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몇몇 도덕적 잘못에 대해서 뉘우친다고 하여 구원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²⁴ 박충, *욕쟁이 예수* (서울: 살림, 2010), 199

²⁵ Ibid., 199

위험한 신학이며, 얼마나 값싼 복음이나” 고 일갈한다.²⁶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는 한국 교회의 신자화(信者化)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열악한 군인교회의 신자화 교육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롤모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의 신자화(信者化) 교육이 어떠했는지 질문하게 된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는데, 최근의 한국 교회도 로마의 핍박과 같은 수많은 도전 앞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모습이나, 기성 교회에서 붓물 터지듯이 드러나는 각종 비리와 목회자의 성(性) 문제,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이기주의적 모습들 속에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소위 ‘가나안 성도’ 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상화된 비대면 예배와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는 형국이다.

비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이끌기는커녕 기성 그리스도인들의 이탈조차 막지 못하는 심각한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군인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장병 중의 많은 수가 교회에 출석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교적 뒷걸음질 속에서 벗어나,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신자화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렌 크라이더는 같은 맥락의 문제의식 속에서 초대교회 선교활동에서의 회심의 문제를 깊이 연구했다. 알렌 크라이더의 연구에 따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²⁶ Ibid., 199

회심을 위해 네 단계를 거쳐야 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잠재적 신앙인의 접촉점인 복음 전도의 단계, 두 번째는, 신앙문답과정의 단계, 세 번째는, 교리 교육을 받고 세례(침례)를 받는 단계, 네 번째는, 입교자에게 구원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신비입문식의 단계이다.”²⁷ 각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었다. 초대교회의 신앙공동체에 참여하기로 한 잠재적 신앙인을 교회 공동체 안의 후견인에게 연결시켜주고,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점검했다고 한다. 이 첫 번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두 번째 단계에 참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예비 신앙인들은 후견인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했다.²⁸ 이 두 번째 과정이 길게는 5년 동안 계속되기도 했는데, 이 과정을 통과해야 세 번째 단계로서 교리 교육을 받고, 세례(침례)를 받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니, 초대교회의 신자화(信者化) 과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철저한 신자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로마의 그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초대교회는 선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사도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대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선교여행을 통해서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그는 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도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로마서 1:15)고 했을 정도로 끊임없는 선교여행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²⁷ 알렌 크라이더, *회심의 변질* 박삼종 외 3인 역 (논산: 대장간), 64~65.

²⁸ Ibid., 67.

교회를 성장시킬 일꾼들을 세워나갔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 양육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세운 제자 디모데이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났고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디모데를 양육하여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성장시켰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종자로서 임무를 수행했다. (행 16:1-3, 4:12-16, 행 20:1-5, 고전 4:17) 바울의 선교 전략의 핵심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양육하여 각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 한 사람의 양육을 통해 직면한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았던 것이다.

일대일 성경공부 양육

김형국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나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그 방법으로 일대일 제자 양육을 강조했다. 그는 일대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의 책 「제자양육, 기독교의 생존방식」에서 한국교회가 놓친 양육방식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꼽았다. 그는 “한국교회는 그동안 담임목사의 설교와 같은 가르치는 형태의 양육방식을 주로 선택해 왔다.” 고 지적하면서 소그룹 모임이나 다양한 세미나 등 역시 누군가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개인이든 회중이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궁극적 목적은 그들을 진정으로 변화시켜 그들 역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돕기 위해서²⁹⁾” 입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대일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²⁹⁾ 김형국, *제자양육, 기독교의 생존방식* (서울: 비아트리, 2018), 428-430.

세우는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요한복음뿐 아니라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감동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사람을 군중으로 만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종교 지도자, 매국노 세리, 온갖 질병에 걸려 있던 병자들, 절망에 빠진 사람,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 일상에 지쳐 있는 사람, 성공을 구가하는 사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자 청년 등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신다. 그냥 만나신 게 아니라 그들의 깊은 곳을 만져주신다. 그리하여 이들 인생에 심대한 영향력을 끼치신다.³⁰

김형국의 책에서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일대일로 만나셨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를 일대일로 만나셨고,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일대일로 만나셨다.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저주했던 세리장 삭개오를 일대일로 만나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대일로 만나셨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일 만남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일대일 대화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장 긴 대화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니던 여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닐 정도로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으려고 애썼던 사도 바울 역시 설교와 강의를 통한 사역과 더불어 일대일의 만남을 통해서 사역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ἕνα ἕκαστον)’ 을 눈물로 훈계했으며(사도행전 20:31), ‘각

³⁰ Ibid., 431.

사람(ἄνθρωπος)을 가르쳐서, ‘각 사람(ἄνθρωπος)을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고자 했다.(골로새서 1:28) 골로새서 1:28에서 ‘각 사람’으로 번역된 ‘ἄνθρωπος’는 총칭적인 용어로, 복수형인 ‘πάντες <ἄνθρωποι>’ (모든 <사람들>)가 쓰이지 않았다. 이것은 각 성도가 개별적으로 사도의 돌봄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³¹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는 일대일로 만나서 무엇을 교육했을까? 초대교회의 신자화 과정의 세 번째 단계인 세례(침례)준비 집중교육 과정의 유명한 강의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시릴³²은 40일 동안 창세기로부터 성경의 끝까지 성경의 전체를 훑어 살피며 성경을 가르쳤다고 한다.³³ 이렇듯 초대교회는 한 사람의 잠재적 신자를 만들기 위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여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례(침례)교육은 8주 동안 매일 3시간씩 이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단순히 성경의 지식만 전달했던 것은 아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잠재적 신자의 삶이 과연 하나님나라의 법칙에 따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끊임없이 검증했다. 성경의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집단적인 성경 교육이나 강의를 통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단계마다 후견인들이 잠재적인 신앙인들과 동행하며 격려하고, 상담하고, 교정해 주는 헌신적인 과정이 있었다.³⁴ 한 사람의 신앙교육을 위해 밀접하고, 친밀한 후견자의 활동이 중요했던 것이다. 즉,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장 원동력 중의 하나는 후견인과 잠재적 신앙인의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³¹ 피터 T. 오브라이언 지음, *WBC 성경주석 : 골로새서·빌레몬서* (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 199.

³² 알렉산드리아의 시릴(375년 경~444년 경), 알렉산드리아의 제24대 대주교였으며, 에베소 종교회의(431년)에서 네스토리우스를 파문한 것으로 유명하다.

³³ 크라이더, *희심의 변질*, Ibid., 100.

³⁴ Ibid., 106.

성경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인도자와 교육자의 일대일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한 양육 선교 전략이야말로 한국교회가, 특히 군인교회가 눈 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대일 제자양육의 필요성에 공감한 해군과 공군의 일부 군종목사들을 중심으로 2018년부터 하나님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³⁵에서 진행하는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교회가 생기고 있으며, 육군 군인교회도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은 서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장애물에 대한 이해와 확인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 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기에도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일대일 제자양육만으로 군인교회의 모든 신자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설교와 강의, 소그룹 모임과 교제 등이 일대일 제자양육과 함께 서로 조화롭게 그 역할을 다하는 교회야말로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육을 통한 선교

그렇다면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양육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제임스 파울러(James W. Fowler)는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발달이론과,

³⁵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가 설립한 선교단체로서 하나님나라 복음이라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선교 및 목회 현장에 적용해오고 있으며 일대일 제자양육, 가정교회 등을 통해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의 돌파구로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바탕으로 신앙의 발달단계 이론을 제시했다.³⁶ 파울러는 신앙발달 단계 이론을 통해서 신앙은 단계적으로 발달의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앙의 발달 단계를 모두 7개로 구조화했다. 인간은 일생을 통해서 7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신앙의 발달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7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신앙의 질적 변화를 통해 다음 단계로 “성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의 의미

파울러의 신앙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가 말하는 ‘신앙’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파울러가 말하는 신앙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과연 기독교적인가? 더 쉽게 말하면, 그것을 기독교 신앙 성장의 잣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속한 군(軍)에서는 ‘참호 속에 무신론자는 없다.’ 는 말이 있다. 눈앞에 죽음이 다가와 있는 전투 현장에서 모든 인간은 ‘신적인’ 존재의 도움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신적인 존재를 모두 기독교적 배경 속에서 떠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전투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유신론자가 된 군인은, 신적인 존재와 자신 사이의 ‘수직적인 일대일 관계’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전투 현장에 함께 있는 동료들과의 ‘수평적 관계’

³⁶ 제임스 파울러는 그의 책 *신앙의 발달단계*에서 에릭슨, 피아제, 콜버그의 세미나 속 가상 대화의 형식을 빌어 신앙발달에 대한 그들의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파울러, *신앙의 발달단계*, 78-93.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신적인 존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파울러가 말하는 신앙의 의미가 마치 이와 같다. 파울러는 폴 틸리히(Paul Tillich)와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를 인용하며 인간의 궁극적 관심을 설명하면서 신앙을 종교적 신념과 동일시하는 것을 일축한다. 신앙을 유아기에 우리를 길러 준 사람들과 맺게 되는 최초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본 니버의 말을 빌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 충성, 불신, 배신 등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³⁷

권택조는 이러한 파울러의 신앙의 개념을 복음주의적 기독교교육학의 관점에서 비판했다. 그는 “파울러의 신앙발달 이론에서 의미하는 신앙의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혁주의적 신앙의 개념과 전적으로 다르다. 복음주의적 신앙의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면, 즉, 특수적이라면 파울러의 신앙의 개념은 어떤 종교인이든 또는 비종교인이든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 된다. 즉, 파울러의 신앙의 개념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에 기반을 둔 것” 이라고 했다.³⁸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파울러의 신앙발달 이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소개했는데, “첫째, 기독교 교육자들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하게 갖는데 도움을 주고, 인간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갖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 둘째, 종교교육의 과정과 단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셋째,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한 은혜의 속죄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보완해 준다는 것” 이다.³⁹

³⁷ Ibid., 25.

³⁸ 권택조, “복음주의적 기독교교육학의 관점에서 본 파울러의 신앙발달 이론에 관한 연구,” *신학파 선교*. 278.

³⁹ Ibid., 277.

이와 관련해서 성장환은 파울러의 신앙발달 이론은 교회교육에 실천적인 유용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발달이론을,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맞춘 커리큘럼을 작성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인의 신앙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 목회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신앙이 생애를 두고 발달한다고 이해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생애에 걸친 신앙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한국 교회에서 더욱 연구하고 적용해야 할 이론이라고 강조했다.⁴⁰

바로 여기에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 또는 신앙공동체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한 사람의 신앙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고사성어의 뜻처럼 교회공동체는 한 사람의 신앙발달을 위해 적절한 신앙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양적 성장에 도취되어 있다가 최근 기독교 인구의 급감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파울러의 신앙발달 이론을 더욱 실천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파울러가 말하는 신앙이 기독교의 교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높은 활용성을 구분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뿐이다. 각 신앙의 단계에 맞는 적절한 신앙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한국교회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파울러의 신앙발달의 단계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⁴⁰ 성장환, “파울러의 결합적 신앙을 통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주관적 상대주의 극복 제안,” *서울장신 논문* 27, 232.

미분화된 신앙 (영아기)⁴¹

0~2세 이전의 시기로서 단계 이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신뢰, 용기, 희망과 사랑의 씨앗들이 미분화된 방식으로 혼합된다. 영아들은 자신의 환경에서 버림받음, 한결같지 않음, 박탈 등의 위협들과 싸우게 된다. 이 시기에 발달된 자율성과 신뢰, 상호성의 질(質), 희망, 용기(또는 이와 상반되는 것들)는 이후 신앙발달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이 단계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힘은, 기본적인 신뢰라는 원천과 일차적인 사랑과 돌봄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적 경험이다. 이 단계의 위험은 이러한 관계적 경험의 실패가 앞으로의 삶에 지나친 자기애적 경향 또는 불신으로 고립, 관계 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단계 : 직관적-투사적 신앙⁴²

2(3)~7세의 어린이에게서 어린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의 단계로서 이 단계의 힘은 상상력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의 세계를 강력한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성인들과 달리 이성적인 이해나 논리적인 사고에 의지하지 않고,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세상을 대면하고, 정보를 받아들인다.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과 만나게 된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이런 새로운 것들과의 대면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은 이미지들과 그에 대한 좋고, 나쁜 감정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과 같은

⁴¹ 파울러, *신앙의 발달단계*, 188~192.

⁴² Ibid., 193~212

것이다. 본격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어린이들은 언어, 이야기 등을 통해 종교적인 가르침을 수용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위험한 점은 파괴적인 이미지들, 억제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 더 나아가 어떤 금기, 교리적이고 도덕적인 강요 등으로 어린이의 상상력을 고의적으로 혹은 부지 중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힘은,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사고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 환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단계 : 신화적-문자적 신앙⁴³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의 신앙 단계로서 이 단계의 어린이들은 전 단계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 중심의 구성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질서를 만들기 시작한다.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들, 관행들, 신념들, 종교적 의식들을 이해하고 스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덕적 규칙과 태도처럼 이러한 신념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상징적이고 극적인 자료들로부터 강렬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 어린이들에게 그 상징들은 일차원적이고, 의미는 문자적이다.

이 단계에서의 가장 큰 힘은 이야기가 출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의 경험에 일관성을 발견하게 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들에 대해 성찰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상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창세기의

⁴³ Ibid., 213-238.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의 상충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음 단계인 3단계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3단계 : 종합적-인습적 신앙⁴⁴

청소년기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경험이 가족 등과 같은 기초적인 관계를 넘어 확대되기 시작한다. 가족들을 포함해서 학교, 또래 집단 등에서의 그 구성원들과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특성이 나타나는데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교회와 같은 공동체 안의 가르침이나 성인들의 신앙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에게 관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의 기대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신념이나 가치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그 공동체 또는 그 속의 인간관계를 깨뜨리면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안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에 확실한 자율적 판단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순응주의’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이 시기의 특징이자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공동체 안의 가족, 동료, 권위자들의 기대와 평가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판단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신앙단계로 이동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둘째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배신,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게 된다거나 또는 이러한 절망스러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보상적 친밀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속적인

⁴⁴ Ibid., 239-276.

관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한 요소는 공동체 안의 가치나 신념들의 충돌이나 모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교회 지도자들의 성적인 문제들, 교회 안의 금전적 비리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머물렀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경험들(정서적, 육체적)을 하게 됨으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의 가치, 신념들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파울러에 의하면 대부분의 성인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종합적-인습적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4단계 : 개별적-반성적 신앙⁴⁵

주로 청년기에 해당하는 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자율적인 비판이 없이 받아들였던 신념이나 규범, 가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검토를 시작하게 된다.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정체성이나 신앙, 가치, 이데올로기 등을 구성했었던 자아는 더 이상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4단계로의 실질적인 이동을 위해서는 그동안 의존했던 권위로부터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기에 더욱 확대되는 외부 세계의 경험을 통해 가치체계들의 상대화를 겪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한 비평적 성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권위들의 재정립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집행적

⁴⁵ Ibid., 277~290.

자아(executive ego)' 라고 한다. 이전의 가치, 신념, 이데올로기가 재조직되는 것이다. 즉, 4단계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전 단계에서 의존했던 가치체계로부터의 결별과 집행적 자아의 출현, 즉 기존 가치체계의 재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파울리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기존의 가치체계가 재정립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기존 가치체계의 권위와 결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치체계의 상대화 속에서 기존 권위들과의 결별이 아니라 의존도가 더욱 강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5단계 : 결합적 신앙⁴⁶

결합적 신앙의 단계는 4단계의 “이것 또는 저것”이라는 이분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파울리는 이러한 특징을 ‘대화적(dialogical)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5단계의 결합적 신앙은 4단계가 구성하고 따르려고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던 명백한 이념적 체계와 명백한 정체성의 영역들을 넘어서 나가는 것”⁴⁷이라고 명시했다. 신념과 가치체계에 대한 일종의 변증법적 접근을 시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재정립한 가치체계를 신앙의 중요한 규범으로 수용하지만 그것만 주장하지 않고, 다양한 가치체계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가치체계가 보완되거나 정정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다원주의적 접근의 중립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신앙에 기초한 가치체계와 다른 가치체계의 갈등, 다툼, 충돌을 초월해서

⁴⁶ Ibid., 291-316.

⁴⁷ Ibid., 294.

상호보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6단계 : 보편화된 신앙⁴⁸

파울러는 “6단계로의 이동은 보편화된 인식의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실현을 통하여 5단계의 역설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진다.” 고 했다.⁴⁹ 5단계의 변증법적 특성은 다소 역설적이다. 5단계의 자아는, 자신이 재정립한 가치체계와 자신의 존재, 평안을 보존하려는 욕구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무력하게 멈추지 않도록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즉, 제도나 기존 질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행동화를 통해서 6단계로의 이동이 가능해진다. 인간들의 조건들이 큰 의미가 없어지고, 다양한 문화와 삶의 양식들을 수용하는데 심지어는 종교의 차이까지 초월하게 된다. 이런 행동들은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포함한 공동체의 생존과 평안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보편화된 신앙의 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그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구에 초연하고, 인간의 조건들에 의미를 두지 않는 단계로서 아주 희귀하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와 같은 인물들이 이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동하기

⁴⁸ Ibid., 317-336.

⁴⁹ Ibid., 318.

지금까지 살펴본 파울러의 신앙발달 단계에서 가장 이동이 어려운 것은 3단계에서 4단계라고 할 수 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비신화화’ 라는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 파울러의 신앙발달단계의 구분에서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3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단계의 특징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아버지나 어머니, 교회의 지도 목사, 중고등부의 교사 등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여기에는 어떤 질문이나 회의가 끼어들지 않는다. 더군다나 신앙에 대한 회의나 질문들을 불경한 것으로 여기고 꺼리는 한국교회의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신앙생활의 특징을 고려하면 3단계를 뛰어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이 단계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분명히 기회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입대 또는 대학 진학과 같은 기존의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4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즉, 자신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남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기도 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해와 상충하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더욱 성숙한 한국교회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파울러는 28세의 잭(Jack)을 면담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잭(Jack)은 입대함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정을 떠났다. 그가 흑표범들(급진적 흑인운동 조직)의 이념적으로 잠재력이 있고 위협적인 가르침을 접했을 때, 그것은 그가 성장할 때 자신과 가족이 대부분의 이웃들과 공유했던 가치체계를 처음으로 비평적 인식을 가지고 보도록 해 주었다. ... 잭에게 있어 군 복무는 그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었고 유지해 주었으며, 동시에 제한시켰던 상호 인간적인 집단으로부터 이탈됨을 의미하였다. ... 잭은 자신의 인습적 가치들을 시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한) 이념과 만나는 것에 더하여 이제는 가정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유(동시에 부담)를 갖게 되었다. 이 사실은 3단계에서 4단계로 이동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순간을 나타낸다.⁵⁰

신앙발달과 군인교회의 양육선교

대부분 20대 초중반으로 구성된 한국군 용사들은 군(軍)의 구성원으로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최초의 또는 직후의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병역법 제3조 ①항⁵¹에 의해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는 만 18세가 된 대한민국의 남성은 입대를 통해서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된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에는 당연히 신앙적인 측면이 포함된다.

⁵⁰ 파울러, *신앙의 발달단계*, 281-283.

⁵¹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용사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교회와 가정 중심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90% 이상의 무교 또는 타 종교인들과 24시간 동안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독교의 윤리적인 규범들에 익숙한 청년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낯선 방식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 성경을 읽는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교회에 출석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된다. 주말에 휴식을 취하는 생활관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일요일마다 홀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위기일 수 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파울러는 “사람들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적응하게 되고, 이러한 적응을 통하여 신앙이 형성되고, 기능을 행하고, 변화된다.”⁵² 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발달 단계의 4단계인 ‘반성적 신앙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관문이 될 수 있다. 성장환은 이에 대해 “4단계의 신앙은 순응적이고 의존적이던 3단계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책임 있는 신앙의 수준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발달의 과정”⁵³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앙의 발달 단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3단계와 4단계 사이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군인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양질의 신앙교육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⁵² 파울러, *신앙의 발달단계*, 178.

⁵³ 성장환, “파울러의 결합적 신앙을 통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주관적 상대주의 극복 제안,” 231.

영향력을 갖춘 미래교회를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2~30대에 대학입학이나 입대와 같이 예견할 수 있거나 혹은 예견할 수 없는 다양한 위기들을 만날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문제의 관건이다. 파울러는 이에 대해 “종합적-인습적 신앙(3단계)에서 개별적-반성적 신앙(4단계)으로의 변천이, 성인기의 변천 이전에 또는 변천 동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발생할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다.⁵⁴” 고 말했는데 이러한 파울러의 주장을 생각하면 군인교회를 통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특히, 3단계에 머물러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군인교회는 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 된다. 즉, 앞서 살펴본 초대교회의 신자화(信者化) 교육 시스템에서와 같이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3단계의 신앙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군인 교회의 기독 용사들을 4단계로 진입시킴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군인교회의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⁵⁴ 파울러, *신앙의 발달단계*, 184.

제 IV 장

군인교회 일대일 성경공부 프로그램

군인교회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의 조건

이은실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36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신앙 인식에 대한 변화, 신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인 초기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대학공동체의 ‘인간관계’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인 초기의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한 프로그램들, 이를테면 선배-후배 간의 멘토링, 학생 간 상담프로그램, 제자 양육, 단기선교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⁵⁵ 또한 인터뷰를 진행한 36명을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발달 단계로 나누었는데 가장 많은 수의 대학생이 3단계에 해당했다. 파울러의 이론에서는 3단계 신앙은 청소년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3단계와 4단계의 사이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들은 이제 막 공동체 안에서 순응해왔던 3단계의 특징에서 물리적으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4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⁵⁵ 이은실, “대학생의 신앙인식 변화단계 및 관련요인에 대한 탐색,” *상담학연구* 3, 41.

모습은, 공동체 안에서의 가치체계, 질서를 중요시하는 3단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은실은 그의 연구 논문에서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신앙과 관련된 이미지나 상징에 대한 비판적, 분석적 시각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불온하게 여기는 다소 보수적이고, 일방적인 한국교회의 신앙교육”을 꼽았다.⁵⁶

또한 사단법인 ‘새길과 새일’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각종 클럽과 영화관, 쇼핑몰 등을 찾아다니며 20대 청년들을 인터뷰한 결과, 청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5가지로 통계화했는데 경제활동으로 인한 불참(23%), 자신들의 주장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22%), 관계의 문제(16%), 교회와 목사들의 비윤리적 삶(14%),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13%) 등으로 순위가 매겨졌다.⁵⁷

연구자는 이 문제에 대한 용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군인교회에 5주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장기 결석자 102명의 용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용사들이 군인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출석 제한 등은 선택 항목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각 문항에 대해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체	신앙 유형 (해당인원)			계급 (해당인원)			
	모 태	입대 전	입대 후	이 등	일 병	상 병	병 장

⁵⁶ Ibid., 42.

⁵⁷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진짜 이유... 이들과 소통하려면?,” *데일리굿뉴스* (2019.06.10).
<http://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88328>. (2021.11.01. 접속)

		(56)	(35)	(11)	(40)	(30)	(25)	(15)
① 스마트폰, 운동 등 다른 활동을 한다.	52	5	35	12	9	14	20	9
② 예배의 수준이 민간교회와 비교하여 떨어진다.	15	7	8	0	1	3	5	1
③ 교사, 신우들의 무관심이 싫다.	68	41	23	4	15	25	16	12
④ 상급자, 부대원들의 눈치가 보인다.	20	3	7	10	10	10	0	0
⑤ 자격증 등 공부할 시간을 뺏긴다.	15	2	8	5	1	5	5	4
⑥ 교회의 비윤리적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	45	15	19	11	15	13	10	7
⑦ 교리,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지 않는다.	54	2	24	28	15	25	20	4
⑧ 기타	4	3	1	0	2	1	1	0

<표2. 군인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 설문 결과>⁵⁸

⁵⁸ 2020.09.13.~09.20 기간 동안 승리교회(15사단), 2021.10.10.~10.17 기간 동안 선봉대교회(지상작전 사령부)의 5주 이상 장기 결석자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입대 초기의 용사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교사들이나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다른 용사들의 무관심(66.6%)을 선택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였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50.9%)이나 교회의 비윤리적 모습에 대한 실망(44.1%) 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이유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교사들과 신우들의 무관심이라는 ‘관계’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선 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관계 문제’에 민감한 경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앙의 분류에 따라 모태신앙이면서 군인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용사들이 교사와 신우들의 무관심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입대 전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경험했던 용사들의 응답임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교회의 인간관계 문화와 군인교회의 인간관계 문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교회에서의 인간관계 경험이 입대 전 교회에서의 그것에 비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방개혁2.0으로 인한 급격한 군(軍)의 변화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용사 급식 문제 등으로 인해 장병 복지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종교행사 참여 또한 장병 기본권으로서 철저히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상급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설문 결과 역시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한다. 이는 군이라는 특수성, 이를테면 심한 통제와 압박 속에서 쉼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 예배에 참석한다는 그동안의 생각은 지금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 착오일 뿐이다. 이와 더불어 예배의 질, 성경 공부, 사랑의 관계 등과 같은 교회 본연의 기능 회복을 통해서 용사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인교회는 용사들에게 관계적 측면에서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용사들은 종합적-인습적 신앙의 단계를 극복하고, 개별적 반성적 신앙의 단계로 들어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적-인습적 신앙의 단계의 특징인 관계에서의 만족감이 중요하다. 이것이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종합적-인습적 신앙의 단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그렇다면 군인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육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교회는 다양한 양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냈다. 군인교회 역시 다르지 않다. 김택조는 “군인교회에서 진행된 성경 공부와 제자양육 프로그램은 대략만 따져봐도 25가지가 넘는다.⁵⁹⁾” 고 조사했다. 하지만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만족할만한 군인교회 양육프로그램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각 부대 담당 군종목사의 신학적 성향과 선교 및 목회 철학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들이 취사 선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목회자와 신자가 1~2년 만에 변경되는 군인교회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용사들의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어졌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군인교회 전체가 진행하는 양육프로그램으로서 ‘TEE 성경공부⁶⁰⁾’ 를 선정하여 실시하기도 했다. 모든 군인교회가 ‘TEE 성경공부’ 를 진행한다면, 교인들이나 군종목사가 바뀐다 해도 통일된 양육체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TEE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⁵⁹⁾ 김택조, “이야기를 통한 성경과 교리 교육,” 109.

⁶⁰⁾ ‘TEE 성경공부’ 는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의 약자로 신학연장교육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풍성한 생명, 풍성한 빛 등 기본과정과 친구약개론 등의 성경연구과정, 예수님의 생애 등 교회리더 훈련관정으로 나눌 수 있다. 군인교회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통하여 군인교회의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앞서 밝힌 대로 담당 군종목사의 신학적 성향, 목회적 관점의 상이함과 같은 원인으로 초창기와 같은 열기는 식은 상태이다. 현재는 일부 교회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5~10명 내외의 소그룹 형태로 진행되는 TEE 성경공부와 같은 소그룹 프로그램 과정에서는 교회와 일터가 같은 군인교회 특성 속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족이나 부부관계의 문제들, 생활관에서의 대인관계 갈등 문제 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소그룹은 비밀이 보장되는 소그룹 내에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유함으로써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거나 그룹 안의 지지자들로부터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군인교회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작동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문이 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2차적인 위험, 즉 진급이나 부대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면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출석 도장’을 찍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용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에 대해 매우 큰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의 소그룹 내에서 자신의 속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그룹의 보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군인교회에 ‘어! 성경이 읽어지네!’⁶¹⁾ 와 같은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양의 내용을 주입식으로

⁶¹⁾ ‘어! 성경이 읽어지네’ 프로그램은 이해실의 동명 서적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성경일독 프로그램으로서 성경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여 성경의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군인교회에 적용되어 실시되다가 최근 육해공 본부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군인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달하고 암기하는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성경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내용을 강의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신자 간부 및 군인 가족 대상으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일지 몰라도 성경의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용사들에게는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군인교회의 제자양육 프로그램은 자주 바뀌는 신자와 군종목사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으로서 개인적인 문제들을 공유했을 때 부대 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성경의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용사들에게 방대한 양의 성경 내용을 강의식으로 주입하기보다는 성경의 흐름과 주제를 핵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리하면 첫째, 군인교회의 양육선교를 위한 일대일 프로그램은 인도자와 용사 사이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둘째, 개인적인 문제들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발달의 3단계와 4단계의 경계에 서 있는 청년 용사들에게 신앙발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성숙한 한국교회의 리더들을 양성할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한국 군인교회의 부흥을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과정

군인교회에서의 양육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군인교회의 정황에 맞는 제자양육이나 성경공부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을 내놓기에는 궁색하기만 하다. 연구자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제자양육을 진행해

봤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대략 15년의 시간 동안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신자 장병들의 영적 성장과 제자양육을 위해 전도 폭발 세미나, TEE 성경공부, 어! 성경이 읽히네, 목적이 이끄는 삶 세미나, 진로 상담 세미나, 영성 일기 세미나 등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열거한 프로그램의 숫자만큼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장병들의 정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서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다. 대부분이 소그룹이나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이어서 용사들의 마음 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용사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의 생각이나 고민과 맞닥뜨리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다. 이것은 앞서 밝힌 충분한 친밀감을 경험하기에 부족한 환경이다. 강의나 설교 형태의 세미나, 이중 관계 속의 소그룹은 용사들이 영적인 친밀감을 경험하는데 적절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군인교회의 특성, 그리고 용사 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더욱 친밀감을 느꼈던 다수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일대일의 방식을 적용해야겠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성경의 내용을 강의식으로 주입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암기해서 발표하고, 시험을 보도록 하는 형태의 제자양육 방법에 용사들은 거부감을 표현했다.⁶² 방식도 문제였지만 내용도 문제였다. 장병들의 삶의 정황과 동떨어진 단순한 성경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은 군인교회를 그들의 일상과 떨어뜨려 놓았다.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같은 성경의 내용이더라도 전해지는 내용을 통해서 장병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여기에서 폴 리쾨르(Paul Ricoeur)의 성경 해석에 대한 이해를 적용해 볼 수 있다.

⁶² 전도폭발 프로그램이나 어! 성경이 읽히네 프로그램을 경험한 용사들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에서 단순한 암기와 주입식의 교육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으며 자신들의 질문과 고민 등 삶 속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했다.

강미량은 리피르의 Narrative Identity 이론을 소그룹 성경공부에 적용하는 연구 소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리피르의 정체성 이해를 위한 자아와 타자 사이의 변증법은 자신의 이야기와 타자의 이야기 사이의 만남을 통한 관계를 지향한다. 그의 본문 해석학은 타자, 타자들, 더 나아가 절대타자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다. 여기서 리피르는 본문을 하나의 타자로 보고, 그 본문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참고를 발견하고자 한다. 기독교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독서, 또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만난다.⁶³

단순한 성경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성경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연구자가 제안하는 군인교회의 제자 양육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고, 그 친밀감을 공유하는 인도자와의 유대감을 통해 군인교회의 공동체성을 높여가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때 입대 전 소속 교회에서 얻을 수 있었던 관계적 차원의 만족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대로 인해 전 소속 교회나 가족들과 강제적인 분리를 경험한 상태에서 겪게 되는 혼란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며 문제들을 해소해 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감정적 위로만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용사들이 던지는 기존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질문은 예리하고 날카롭다. 그것은 교리에 관한 것으로부터 기성 교회들의 부정적인 사건,

⁶³ 강미량, “리피르의 Narrative Identity 이론의 소그룹 성경공부예로의 적용,” 319.

사고에까지 다양하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만으로 이들을 4단계로 이끌 수 없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 속에서의 강한 유대감으로 강화될 수 있는 내면의 힘이다. 건강한 유대감이 전제되었을 때, 소속된 공동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왜곡된 공동체의 소속감은 외부와의 소통을 더욱 단절시킬 뿐이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의 소속감은 3단계 신앙발달 단계의 청년들이 지금까지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4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준다.

데이비드 키네먼과 게이브 라이언은 그들의 책 *Unchristian*에서 안티기독교의 시대에 기독교 이미지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3년간의 방대한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기독교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많은 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독교 밖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급격히 퇴색되어 가고 있는지” 를 보여주었다. 또한 “교회 밖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거부했기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다.⁶⁴

폴 틸리히(Paul Johannes Tillich)의 문화신학의 중요한 명제인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 문명은 기독교 문화를 그 기초로 하고 있다. 기독교는 기독교 밖의 세상과 분리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 밖의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게토화된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⁶⁵ 기독교가 기독교 울타리 밖의 세계와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체계 속에서만 순응하고 안주하는

⁶⁴ 데이비드 키네먼, 게이브 라이언, *나쁜 그리스도인* (이혜진 역, 서울: 살림, 2008), 13~14.

⁶⁵ 김진영, “불통을 넘어 소통하는 기독교를 향해,” *기독일보* (2016년 9월 1일), 7.

모습은 전형적인 3단계의 모습이며, 파울러의 말대로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이러한 모습으로 3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3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가? 데이비드 키네먼과 게이브 라이언의 연구를 들이대지 않고서도 우리는 이미 기독교의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선교적인 장애물이 되어왔는지 알고 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만 행복한 신앙생활은 많은 비기독교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독교인이 급감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그 증거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 울타리 밖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4단계의 신앙발달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간절한 필요 속에서 선택한 것이 조병호의 통(通)성경학교였다. 조병호는 통(通)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다양한 관점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산재해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나라의 구성,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나라에 관련한 7가지 질문,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 유월절과 첫 번째 성찬식 등의 관점들이 그것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짧은 장병들의 군 복무 기간과 간부 교인 및 군종목사의 보직 순환이 빠른 군인교회의 특별한 환경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루면서도, 장병들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성적인 내용이 필요했다. 그러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했다. 이와 같은 군인교회의 필요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 바로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과정이었다. 마음 훈련은 효과적인 성경통독이 가능하도록 전체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서, 하나님의 ‘마음’ 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낸 것이다. 조병호는 그의 책 「마음 훈련」⁶⁶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생각 이상으로 많이 표현해주고 있다.”⁶⁷ 고 강조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에 대한 기쁨과 아픔이 모두 존재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마음을 모두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최적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질문이 마음으로 수용됨으로써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위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과제는 마음 훈련 교재의 내용을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 형식으로 구조화하는 것이었다.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는 100여 쪽의 소책자로서 20과의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는 교사나 군중병들을 통한 효과적인 일대일 제자양육을 기대할 수 없었다. 짧은 강의나 설교, 또는 성경 통독만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 일대일 제자양육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일대일로 11주 하나님의 마음 읽기

마음 훈련 교재의 구성은 <표3>과 같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 훈련 교재는 통(通)성경 줄기 40개를 20개로 축약해 놓은 것과 같다. 더욱 쉽고 핵심적인 구성으로 장병들과의 거리감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⁶⁶ 조병호의 ‘통성경학교 7스텝’ 중 네 번째 과정으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 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낸 것으로서 연구자는 마음훈련 교재를 활용하여 제자양육을 시행하고 있다.

⁶⁷ 조병호, *통성경학교 STEP2 마음 훈련* (서울: 통독원, 2016), 8.

그러면서도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라는 관점을 통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제자 양육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 훈련 교재의 특성이 잘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즉, 각 과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점이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발견하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 훈련 제 1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기쁨을 표현하셨지만 또 노아의 홍수를 통해 처벌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⁶⁸ 조병호는 그의 책 「마음 훈련」에서 “노아 홍수 때의 그 많은 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일대일 제자 양육 대상자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성적 정보의 전달만이 아닌 감성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중점으로 20개의 각 과를 일대일 제자 양육용으로 제작했다. 거기에는 일대일 제자 양육에 필요한 질문들, 이를테면 1과에서 느껴졌던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라는 것, 양육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지 추측해보라는 것 등이 추가되는 형식이다.

하지만 군인교회에서 20주에 걸친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장병들의 짧아진 군 복무 기간과 휴가, 잦은 야간근무, 훈련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주 성경 공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20개의 주제를 10개로 재구성했다. 1년을 3개월씩 4분기로 나누고, 분기별 12주 가운데 11주는 일대일 성경공부,

⁶⁸ Ibid., 6~10.

마지막 1주는 사후평가 등으로 구성했다. 일대일(1:1)의 명칭과 11주라는 기간에서 반복되는 1이라는 숫자의 음가를 살려 “일대일(1:1)로 11주, 하나님의 마음 읽기” 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목적과 의미를 담아 용사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실제로 성경공부가 진행되는 11주의 구체적인 구성은 <표4>와 같다.

하나님의 마음 (성경통독)		성경의 즐기 (통성경 길라잡이)	
1과	하나님의 마음	1과	원역사
		2과	족장사
		3과	입애굽과 민족
2과	열방을 향한 꿈	4과	출애굽과 제국
		5과	세계 선교의 꿈-제사장 나라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3과	만나 세대	7과	만나세대
		8과	만나학교 졸업
		9과	약속의 땅 입성
4과	신앙 계승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11과	교육의 성공사례
5과	천년 모범	12과	미스바세대 탄생
		13과	왕정의 시작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6과	마음과 지혜	15과	솔로몬과 시가서
7과	사랑의 줄	16과	남북 분열 왕조
	사명의 줄	17과	북이스라엘 멸망
8과	절망 앞에 선	18과	남유다 멸망
	희망	19과	잠간의 징계
9과	징계, 희망의 디딤돌	20과	포로민 설득
		21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10과	재건 공동체	22과	성전 재건
		23과	성벽 재건
		24과	고백과 침묵
11과	‘어떻게’ 와	25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이렇게’ 사이	26과	로마 제국과 중간사
12과	기쁨을 위한 탄생	27과	예수님 탄생
13과	한 영혼 사랑	28과	공생애 3년
14과	용서를 향한 열정	29과	마지막 일주일
15과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30과	십자가 승리 - 하나님나라
16과	열리는 제자 시대	31과	열리는 제자 시대
17과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32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33과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4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18과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35과	마을의 예루살렘 여행
		36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37과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38과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1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3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20과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40과	최후 승리의 노래

<표3. 통성경학교 하나님의 마음 및 성경즐기 비교 목록표>⁶⁹

회차	통성경 마음 훈련	내 용 (하나님의 마음 읽기)
1	0. 첫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 브레이킹, 성경공부 구조화(시간, 장소 등) • 차성진 목사의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⁷⁰ 활용
2	1. 하나님의 마음 2. 열방을 향한 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 때의 좋아하는 마음과 홍수심판 때 아픈 마음 •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꿈 꾸시는 하나님의 마음
3	3. 만나 세대 4. 신앙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나세대를 통한 하나님의 꿈(제사장 나라의 꿈)이 이어지는 기쁨과 끊어지는 슬픔
4	5. 천년 모범 6. 마음과 지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 (제국건설이 아닌 성전 건축,

⁶⁹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성경학교 통성경 포플라 (서울: 통독원, 2019), 7.

⁷⁰ 차성진,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경기: 아바서원, 2020). 전체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
5	7. 사랑의 줄 사명의 줄 8. 절망 앞에 선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끊임없는 죄 앞의 끊임없는 긍휼의 마음 (북이스라엘의 죄, 남유다의 멸망, 절망 속에 외치는 희망)
6	9. 징계, 희망의 디딤돌 10. 재건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벨론 포로 70년 징벌은 희망의 디딤돌 • 만나세대를 이은 ‘재건공동체’ 를 즐거워하시는 마음
7	11.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12. 기쁨을 위한 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 사랑하셨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 영광의 기쁨을 알리시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8	13. 한 영혼 사랑 14. 용서를 향한 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거라사 광인, 나사로) •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까지 품으시는 용서의 열정
9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16. 열리는 제자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나라로 초대하시는 기쁨 •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나라의 새 시대를 여시는 기쁨
10	17.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18. 준비된 면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민족을 향해 열린 하나님나라를 기뻐하시는 마음 • 바울의 고백을 믿고 따르는 디모데, 마가를 보시는 기쁨

	남겨진 부탁	
11	1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20.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하늘과 새땅의 기쁨을 맛보며 땅끝까지, 끝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을 응원하시는 마음

<표4. 통성경학교 하나님의 마음 11주 과정 재구성>

일대일 성경공부 진행은, 마음 훈련 Training 교재를 읽어온 후, 교사에 의한 질문과 대화 형식으로 구성했다.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생각과 마음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대일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는 진행자들이었다. 이들의 열정과 역량에 따라 일대일 성경 공부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의 전파에 대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우부 교사들의 헌신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성경 공부 리더, 즉 신우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진행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4주간 진행했으며, 이론과 실습 시간으로 구성했다. 코로나19 지침으로 소그룹 모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했음에도 모든 교사가 참여해 주었다. 이 시간을 통해 교사들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이해하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해주었다. 군인교회 일대일 성경 공부의 원동력은 인도자들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 이들의 열정과 헌신을 일깨우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대일 성경공부 인도자 과정에 참여한 모든 교사는 이 과정을 통해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컵 안에 물이 넘쳐야 컵 밖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처럼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효과적인 일대일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일대일 성경 공부 인도자 과정 이후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성경 공부를 진행했다. 연구자와 일대일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교사는 용사 대상 일대일 성경공부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본인의 성경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 만남

먼저, 신우부 교사들을 통해서 용사들을 일대일로 만나게 했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이것은 앞서 제시하였던 <표 3>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주중에 일일체력단련 시간⁷¹을 활용하여 용사들과 산책을 하기도 하고, 일과 후 개인정비 시간⁷²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하기도 했다. 문제는 교사들이 일대일로 대화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물론 일대일 제자 양육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이미 진행한 상황이었지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곧바로 제자 양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도, 용사들에게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간부와 용사라는 관계, 상급자와 하급자, 교사와 제자라는 이중적인 관계 속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⁷¹ 대한민국 육군은 매일 16시와 수요일 14시 이후를 체력단련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⁷² 업무시간 이후의 개인적인 활동이 가능한 17시 30분 이후, 취침 전까지의 시간을 지칭한다.

그리하여 친밀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질문들을 구조화하여 교사들에게 제공하였다.

스토니브룩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아서 아론의 친밀함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가벼운 일상에 대한 대화보다 다소 무거운 주제의 대화를 나눴을 때 오히려 친밀감이 높아진다고 한다.⁷³ 그래서 선택한 것이 차성진의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였다. 무종교인들을 포함한 젊은 청년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소책자인데, 청년들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내용이다. 이 소책자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들을 활용하여 성경공부 첫 만남을 구성했다. 모두 8개의 질문을 구성했다. 금방 휘발되어버리는 일상적 대화보다는 청년들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을 주제를 담은 질문들로 앞으로의 일대일(1:1) 성경 공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도록 했다. 각 질문을 활용해서 용사와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8개의 모든 질문을 다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각각의 질문에 대한 정답 맞히기식의 일방적인 전달이 되지 않도록 용사들의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했다. 질문의 내용은 <표5>과 같다.

두 번째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첫 만남에서 나누었던 질문의 맥락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결고리가 필요한 것이다. 8개 질문의 핵심은 인간은 스스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력이나 권력, 인기와 같은 인간의 욕망을 다 채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지만 원하는 만큼 채울 수도 없을뿐더러 눈앞의 욕망을 채운다 해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욕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⁷³ 류취안,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원녕경 역 (서울:다연, 2019), 134-135.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욕망과의 만남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해서 그 특별한 만남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일대일 성경공부의 목적이다. 교사들은 첫 번째 만남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용사와 상의하여 다음 만남을 구조화하도록 했다. 구조화의 내용은, 만나는 시간, 장소, 과제였는데, 이때 조병호의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를 전달하도록 했다. 두 번째 만남을 위한 과제는 마음 훈련 교재 1과를 읽어오는 것이다. 마음 훈련의 각과는 소책자 분량으로 5~6쪽 정도이기 때문에 용사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짧은 내용을 깊이 묵상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에 좋다.

- ① 사람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 ②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③ 돈, 명예, 성공, 사랑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 ④ 사람은 악할까, 선할까?
- ⑤ 사람의 악함은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의 악함은 무엇이었는가?)
- ⑥ 이 악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 ⑦ 혹시, 악함과 상관없이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과연 '죽음'을 앞두게 된다면 어떨까?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

⑧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표5. 1:1 성경공부 1주차를 위한 질문>⁷⁴



<그림1. 통(通)성경학교 STEP2 “마음훈련” 교재>

⁷⁴ Ibid. 전체 요약

구 분	내 용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소개 • 칭찬(외모, 목소리 등), 최근의 기분 물어보기 등 • “요즘 행복하세요?” 질문하기
중심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 돈, 명예, 성공, 사랑을 모두 갖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 삶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드물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행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한다)의 결과이다. •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악한 본성을 드러낸다. 인간은 자의든, 타의든 타인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론,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끝까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을까? •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 다음 만남에 대한 구조화 (1~2과 읽기, 시간, 장소)

<표6. 첫 번째 일대일(1:1) 만남의 구조>



<그림2. 일대일 양육 모습(군인교회 카페)>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 주된 내용은,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1과 ‘하나님의 마음’ 과 2과 ‘열방을 향한 꿈’ 을 기초로 구성했다. 1과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기뻐하시는 마음과 노아의 홍수 심판 때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통하여 인류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창세기의 두 군데 성경구절을 핵심으로 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31)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5-6)

2과 열방을 향한 꿈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를 선택하셔서 온 인류를 향한 ‘제사장 나라’ 의 꿈을 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제로 했다. 1과와 2과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요약하여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참 기뻐하셨다. 하지만 인류의 죄악 때문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때 매우 슬픈 마음을 표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려는 꿈을 꾸셨다.” 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첫 번째 만남에서의 주제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주제로 접근해야 한다. 쾌락이나 재산, 명예, 권력 같은 것으로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인간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성경 스바냐 3:17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확인한다. 즉,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틀어진 친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진실한 마음을 아는 것임을 확인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도록 유도한다. 즉,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의 1과와 2과를 읽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후의 나의 마음은 어떤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한다. 두 번째 만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1주간의 삶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 만남 이후 어떻게 지냈는가?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혼자의 힘으로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인간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u> ☞ 재산, 쾌락, 명예, 권력 같은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 그렇다면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스바냐 3:17을 읽어보자.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슌 3:17, 새번역)

☞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⁷⁵

-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
- 틀어진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로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는 것

-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⁷⁵ 김형국,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워크북* (경기: 비아트리, 2019), 19~20.

중심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 노아 홍수의 많은 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 내가 도와준 나의 가족이 나를 배신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 2과 열방을 향한 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꾸셨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나의 마음은 어떤가? • 다음 만남에 대한 구조화 (3-4과 읽기, 시간, 장소)

<표7. 두 번째 일대일(1:1) 만남의 구조>

세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은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3과 ‘만나세대’와 4과 ‘신앙 계승’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하고 불안한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출애굽 때 20세가 되지 않았던 청소년들과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태어난 어린이들, 즉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셨다. 조병호는 이들을 ‘만나세대’라고 지칭했다.⁷⁶ 새로운 세대인 만나세대를 통해 그 꿈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만나세대를

⁷⁶ 조병호, *통통성경학교 STEP2 마음 훈련*, 19.

가르치셨고, 광야 생활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셨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었다. 하나님은 이들, 만나세대와 함께 꿈을 이루어가시기를 기대하셨고, 설레셨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신앙 계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앙을 계승하여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기 한이 없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성경의 표현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다. 이것이 350여 년간의 사사시대이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세 번째 만남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중심 성경구절은 신명기 8:3과 사사기 10:16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사사기 10:16)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두 번째 만남의 주제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한다. 지난 만남에서 함께 살펴

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정도면 충분하다. 창조하신 인류의 배신으로 마음이 아프셨던 하나님은 그렇다고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때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을까를 생각해보게 한다.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간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인간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신앙발달 4단계에 진입하려고 하는 용사들에게 있어서 기성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은 ‘만나세대’를 통해 증명되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만나세대는 다시 하나님을 배신한다. 이들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려보도록 하면서 만남을 마무리한다. 세 번째 만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1주간의 삶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번째 만남 이후 어떻게 지냈는가?

복습 및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에 노아 홍수의 ‘물’ 을 무엇이라고 했었는가? • 창조하신 인류의 배신으로 마음 아프셨던 하나님을 생각해봤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가 배신했다고 해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 안타까우셨지만 인간의 최악 때문에 인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마음
중심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만나세대에 대한 기대로 표현되었다. 만나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새 세대, 만나 세대를 통해 제사장나라의 꿈을 이루실 생각으로 설렘과 기대, 만나세대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셨을 것 • 기대에 부풀어 계획했던 일이 무산되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 ☞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 만나세대를 통한 기대가 있었지만 곧 무산된다. 무슨 일일까? • 모세의 신앙이 여호수아로 이름답게 계승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 만나세대를 통한 제사장 나라에 대한 기대감 •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으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경험하셨을 것 • 사회에서 비판받고 있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나의 마음은 어떤가? • 다음 만남에 대한 구조화 (5-6과 읽기, 시간, 장소)

<표8. 세 번째 일대일(1:1) 만남의 구조>

네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은 통(通)성경학교 5과 ‘천년 모범’, 6과 ‘마음과 지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안타까우셨던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를 지내고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바로 다윗이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신앙 계승을 보시면서 행복하셨던 하나님은 다윗왕을 통해 또 다시 큰 기쁨을 표현하신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라고 하실 정도로 기뻐하셨다. 다윗은 점점 강대해지는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기억했고, 그 언약대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다윗의 계획,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솔로몬 때에 성전 완공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 천년 가까이 지속되었다.⁷⁷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셨다(사도행전 13:22).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오르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사명의 완수를 기대하셨을 것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역시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다. 하나님의 기대감이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는 솔로몬의 말년에 이르러 또 한 번 무산되고 말았다. 솔로몬은 강대해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는 주변국들의 공주들과 정략결혼을 했는데 그녀들이 들여온 우상의 문화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초로 한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 되고자 하는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네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성경구절은, 사도행전 13:22과 왕상 11:4이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3:22)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⁷⁷ 조병호, 통(通)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 1 (서울: 통독원, 2017), 110~111.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열왕기상 11:4)

네 번째 만남 역시 세 번째 만남의 주제에 대한 간략한 복습으로부터 시작한다.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은 전체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한 줄거리로 소개하는 것도 좋다. 세 번째 만남의 주제는 만나세대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한다.

도입 질문은 ‘지금까지 내 마음에 딱 맞는 친구가 있었는가!’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친구를 만났을 때의 마음을 표현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잘 맞았는지, 어떤 면이 좋았는지를 기억해내도록 하는 것이다. 입대 전에 만났던 친구일 수도 있고, 입대 후에 만났던 선후배 용사, 또는 간부일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다윗의 어떠한 면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렸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지금 진행하는 일대일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고, 헤아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딱 맞는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제국의 꿈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예루살렘을 제국의 수도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이다. 그 성전에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자 했던 것인데, 조병호는 이것을 다윗의 도발적이고, 과격적인 생각이라고 평했다. 왜냐하면

언약계는 본래 이동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어느 한 곳에 보관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⁷⁸ 즉,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 헤아리기 프로그램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은 말년의 솔로몬으로 인해 무산되고 만다. 말년의 솔로몬으로 인한 하나님 마음의 실망스러움과 아픔을 같이 상상해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만남을 마무리한다. 네 번째 만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1주간의 삶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번째 만남 이후 어떻게 지냈는가?
복 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에 만나세대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실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다. 혹시 지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추가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 지금까지의 성경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다.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내 마음에 딱 맞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가? 그 때의 경험과 기분에 대해서 말해보자.
중심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⁷⁸ 조병호, *통통성경학교 STEP2 마음 훈련*,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윗의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p>☞ 점점 강대해지는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p> <p>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했던 것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증명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윗으로 인한 기쁨은 솔로몬으로 이어졌다. <p>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다.</p> <p>그러나 그 마음은 곧 실망으로 변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좇아 살았기 때문이다.</p> <p>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p>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나의 마음은 어떤가? • 다음 만남에 대한 구조화 (7-8과 읽기, 시간, 장소)

<표9. 네 번째 일대일(1:1) 만남의 구조>

다섯 번째 만남

다섯 번째 만남은 통(通)성경학교 7과 ‘사랑의 줄, 사명의 줄’ 과 8과 ‘절망 앞에 선 희망’ 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7과와 8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⁷⁹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⁷⁹ Ibid., 39-49.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쪽의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떨어져나갔다.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지만 여로보암은 벤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앉혀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제사장 나라의 꿈이 또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동을 ‘다윗의 길’ 과 구별하여 ‘여로보암의 길’ 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때의 마음을 표현하셨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서(호세아 11:8)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를 스스로에게 돌리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심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유지되었던 200년 동안 사명의 줄을 놓아버렸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셨던 것이다.⁸⁰

그러나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150여 년간 유지되었던 남유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보기 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기억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남유다 역시 징계하셔야 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남유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70년간의 징계였고,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회복할 것이며 제사장 나라의

⁸⁰ Ibid., 41-42.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려는 계획이었다. 조병호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세 가지 의미로 풀어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 두 번째는 900년 동안 지키지 않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일수로서 70년이라는 의미, 세 번째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대한 재교육의 기간이라는 의미라고 하였다.⁸¹

남유다의 백성은 비록 나라가 망하는 절망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즉 다섯 번째 만남의 핵심 주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의 줄을 놓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중심 성경구절은, 호세아 11:8, 예레미야애가 3:33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11:8)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애가 3:33)

1과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인간의 배신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을 표현하셨지만 곧 그 기쁜 마음은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로 무색하게 되었다. 이것은 홍수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해졌다. 홍수

⁸¹ 조병호, *통하는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서울: 통독원, 2018), 106-116.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기대의 마음을 표현하셨지만 역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슬픔과 실망으로 변하게 된다. 만나세대로 인한 기쁨과 가나안 정착 이후 사사시대의 사람들에 의한 슬픔, 다윗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과 그 이후 왕정시대의 계속되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슬픔이 반복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섯 번째 만남의 도입 주제로 활용하여 결론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절대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상상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호세아 11:9)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도입 질문으로 하여 서로 생각해보고, 왜 용서하지 못했는지를 대화를 통해 나누어 본다. 또는 지금까지 가장 크게 용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는지를 나누는 것도 좋다. 대화를 나눈 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셨다는 것을 1과부터 지금까지의 성경 공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보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배신이라는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하는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죄악들과 남유다의 죄악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결국 이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호세아 11:9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만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1주간의 삶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번째 만남 이후 어떻게 지냈는가?
복 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에 다윗을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다.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나의 마음은 어땠는가? • 지금까지의 성경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다.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 또는, 지금까지 내가 가장 크게 용서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중심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과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이 있는데, 눈치챘는가? 무엇인지 말해 줄 수 있는가? ☞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배신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p>☞ 호세아 11:9을 읽어보면서 답을 생각해 본다.</p> <p>“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p>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나의 마음은 어떤가? • 다음 만남에 대한 구조화 (9-10과 읽기, 시간, 장소)

<표10. 다섯 번째 일대일(1:1) 만남의 구조>

여섯 번째 만남

여섯 번째 만남은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9과 ‘징계, 희망의 디딤돌’ 과 10과 ‘재건 공동체’ 를 중심으로 구성했다.⁸² 9과의 주인공은 에스겔 선지자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그밭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같이 포로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마음의 핵심은

⁸² 조병호, *통통성경학교 STEP2 마음 훈련*, 50~61.

‘바벨론 포로 징계는 희망의 디딤돌!’ 이라는 것이었다.⁸³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큰 충격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나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으며,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큰 잘못이 없는 자신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억울해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했다.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것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에스겔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을 것이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힘을 얻었을 것이다.

10과에서는 에스겔의 외침대로 70년의 징계가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가 다뤄진다. 모두 세 차례에 걸친 귀환을 통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도 재건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지극히 기쁜 마음을 표현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심 성경구절은, 에스겔 33:11과 느헤미야 12:43이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 33:11)

⁸³ Ibid., p.54.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 12:43)

여섯 번째 만남의 진행은, 지난 시간의 주제에 대한 상기로부터 시작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계속되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셨다. 혹시 인도자와 용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반복되는 죄악이 있는지 나눠보는 것도 좋다. 반복되는 범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섯 번째 만남의 이야기로 도입한다.

도입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상하거나 서운했던 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러한 오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많이 서운했을 것이다. 서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징계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범죄에 대한 징계, 제사장나라 사명의 재교육 기간이라는 의미가 그것이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인도자와 용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서술한 대로, 신앙발달의 4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 이를테면 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돕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게 하시는가? 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외침 그대로 70년 만에 확실하게 해결되었다. 포로귀환이 시작된 것이다. 3차에 걸친 귀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제사장 나라 사명 완수를 위한 기회를 주셨다.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하면서 만남을 마무리한다. 여섯 번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1주간의 삶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섯 번째 만남 이후 어떻게 지냈는가?
복 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악행을 살펴보았다. 혹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죄가 있는가? • 반복되는 죄를 짓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지난 시간 성경 속의 이야기를 근거로 이야기해보자. • 지금까지의 성경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다.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속상한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무엇이고, 왜 그런가?
중심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다. 오해의 내용은 무엇인가? ☞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멸망을 막지 못했다.

	<p>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p> <p>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p> <p>• 이스라엘 백성의 오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마음은 무엇인가?</p> <p>☞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것이며, 징계의 기간(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에스겔을 통해서 징계의 의미를 설명하셨는데, ①범죄에 대한 징계, ②제사장나라의 사명 재교육의 기간이라는 것이 그것이었다.</p> <p>• 이스라엘 백성의 오해는 70년 만에 풀렸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p>
마무리	<p>•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나의 마음은 어떤가?</p> <p>• 다음 만남에 대한 구조화 (11~12과 읽기, 시간, 장소)</p>

<표11. 여섯 번째 일대일(1:1) 만남의 구조>

일곱 번째 만남

일곱 번째 만남은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의 11과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와 12과 ‘기쁨을 위한 탄생’을 중심으로 구성했다.⁸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⁸⁴ Ibid., 62~72.

하나님의 사랑은 1,500여 년 동안 변함이 없었으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은 끊임이 없었다. 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내가 원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반복하실 정도로 안타까워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재건공동체는 이전처럼 우상을 섬긴다거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 하지만 ‘마음’이 빠져 있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더럽고, 병든 제물을 바치는 등 형식만 남은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주의에 빠진 모습을 질타하셨다. 하지만 백성은 뉘우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언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느냐고 되물었다(말라기 1:2). 그 이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400년이 흘렀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흐른 후에 백성들의 질문에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조병호는 이것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는 백성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다’고 대답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했다.⁸⁵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다. 중심으로 삼는 구절은, 말라기 1:2a과 요한복음 3:16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⁸⁵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7), 382~383.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1:2a)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여섯 번째 만남에서,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음을 상기시키면서 진행을 시작한다.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의 노력과 함께 70년 만의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재건 등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이 회복된 것임을 짧게 설명하는 것도 좋다.

도입 질문은,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용사가 느끼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한 것이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더 크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더 크지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느끼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 것이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재건공동체는 같은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말라기 1:2을 같이 읽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때의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서 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요한복음 3:16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작성해 보게 한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상상해보도록 하는 것이 일곱 번째 만남의 핵심 주제이다.

일곱 번째 만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1주간의 삶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섯 번째 만남 이후 어떻게 지냈는가?
복 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을 오해했던 경험이 있었는가? 오해가 풀렸는가? 풀렸다면 어떻게 풀렸는가? 풀리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 지금까지의 성경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다.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인가? •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느끼는 정도는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중심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같은 질문이 포로기 이후 재건공동체에게도 주어졌다.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말라기 1:2을 읽어보자. • 백성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질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공동체는 안식일과 절기, 율법을 잘 지켰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없는 형식주의에 빠진 모습이었다. • 하나님의 질타에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한복음 3:16을 읽고 직접 작성해 보자. ☞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16을 통하여 대답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양으로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었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나의 마음은 어떤가? • 다음 만남에 대한 구조화 (13~14과 읽기, 시간, 장소)

<표12. 일곱 번째 일대일(1:1) 만남의 구조>

여덟 번째 만남

여덟 번째 만남은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의 13과 ‘한 영혼 사랑’ 과

14과 ‘용서를 향한 열정’ 을 중심으로 구성했다.⁸⁶ 핵심은 ‘나, 한 사람’ 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다.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마가복음 3:20, 6:31) 바쁜 공생애의 일정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에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한 사람을 만나셨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그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돼지 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로 인해 돼지 떼가 모두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수장되었다. 돼지 떼의 주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돼지 2,000마리는 큰 재산이었을텐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킨 것이다. 이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전체 조직과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의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은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신’ 유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연결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열정이다. 그리고나,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다.

중심 성경구절은 마가복음 5:19, 누가복음 23:34이다.

⁸⁶ 조병호, *통통성경학교 STEP2 마음 훈련*, 73~82.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마가복음 5:19b)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진행은, 지난 시간의 복습으로 시작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대화한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의 질문에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도입 질문은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것이다. 세상은 경제적인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그 평가 기준으로 한다. 마가복음 5장(마태복음 8:28~34, 누가복음 8:26~39)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같이 읽으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도록 한다.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의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

또한 마태복음 26:38을 읽으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 ‘만일 할 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다. 예수님의 두려움은 십자가 사형의 고통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로 마무리되었는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상상해보도록 한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열정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한다. 여덟 번째 만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1주간의 삶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곱 번째 만남 이후 어떻게 지냈는가?
복 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신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한다. • 지금까지의 성경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다.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중심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돼지 2,000마리와 귀신 들린 1명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한 영혼과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 예수님의 두려움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의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나의 마음은 어떤가? • 다음 만남에 대한 구조화 (15~16과 읽기, 시간, 장소)

<표13. 여덟 번째 일대일(1:1) 만남의 구조>

아홉 번째 만남

아홉 번째 만남은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의 15과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와 16과 ‘열리는 제자시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⁸⁷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물의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러나 죽음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나라를 선포하셨다. 창조하신 피조물이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에게 위협적인 요소였다. 성전 중심의 유대 사회의 기득권은 어마어마한 돈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성전 중심이 아닌 십자가 중심의 하나님나라 사상이 퍼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막대한 양의 헌금을 더 거두어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거짓 소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⁸⁸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를 비롯한 많은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다. 청년 바울을 만나셔서 같은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나라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마치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던’ 그 마음으로 가득 차오르셨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아홉 번째 만남의 중심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8과 사도행전 5:41~42이다.

⁸⁷ Ibid., 83-93.

⁸⁸ Ibid., 86.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마태복음 28:8)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41~42)

아홉 번째 만남의 진행 역시 지난 만남의 주제를 복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그 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대화를 나눈다. 지난 만남의 주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는 것도 좋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모든 인류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것은, 마치 정성을 다해서 잔칫상을 차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 이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잔칫집 주인의 마음을
상상해보도록 한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칫집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아름답다.
그러나 반대로 잔치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잔칫집은 쓸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런 잔칫집 주인의 마음 역시 쓸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모든
인류를 초대했지만 응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잔칫집 주인의 마음에 잇대어 예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한다. 도입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정성스럽게 잔칫상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손님들을 초대하는 잔칫집 주인의 기분은 어떨까?”, “만약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면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잔칫집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초대하신 잔칫집은 하나님 나라였다(마태복음 4:17, 마가복음 1:15 등).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다.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열리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오르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인도하며 마무리한다. 아홉 번째 만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1주간의 삶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덟 번째 만남 이후 어떻게 지냈는가?
복 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에 인간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혹시 지금까지 삶 속에서 그 차이를 느낀 경험이 있는가? • 지금까지의 성경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다.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성스럽게 잔칫상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한 잔칫집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중심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칫집 주인의 마음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잔칫집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중심사상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마태복음 4:17, 마가복음 1:15 등을 찾아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나라를 선포하셨다. <p>“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p> <p>(마 4:17)</p> <p>“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p> <p>(막 1:15)</p> 잔칫집 주인이 잔치에 초대하듯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나라에 모든 인류를 초대하셨다. 이 하나님나라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이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더욱 많은 사람이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나의 마음은 어떤가? • 다음 만남에 대한 구조화 (17~18과 읽기, 시간, 장소)
-----	--

<표14. 아홉 번째 일대일(1:1) 만남의 구조>

열 번째 만남

열 번째 만남은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의 17과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18과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을 중심으로 구성했다.⁸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는 것이었다. 제사장나라의 사명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었다.⁹⁰ (창세기 12:1~3, 출애굽기 19:5, 사도행전 1:8)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에 함몰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결국 깨닫지 못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은 모두 이방인이었고 배척의 대상이었다.

이들의 이러한 생각은 초대교회까지 이어졌다. 유대인들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 나라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⁸⁹ Ibid., 94~103.

⁹⁰ 조병호, *성경통독*, 83.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복음을 전파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첨예한 갈등 상황이 빚어졌다. 이러한 갈등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후에 열린 1차 예루살렘 공의회로 이어졌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회의의 결과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며 율법의 준수 문제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것으로 모아졌다. 드디어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나라 복음의 본래 뜻대로 결정하게 된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큰 기쁨으로 차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선민의식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다. 유대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지독하게 방해했다. 사도 바울의 선교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나 A.D.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명을 쓰게 되면서 로마에 의한 박해까지 더해졌다. 결국 사도 바울은 체포되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다. 놀라운 것은 편지의 내용이였다. 슬픔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했다. 준비된 면류관을 소망하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편지를 받은 디모데 역시 편지의 내용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중심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5:11, 디모데후서 4:8이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도행전 15:11)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디모데후서 4:8)

아홉 번째 만남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나라 잔치를 준비하시고, 모든 인류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제로 한다. 열 번째 만남은 그 주제를 상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삶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삶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도입 질문은 다소 어렵지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구성했다.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셔서 제사장나라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던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마음에 두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셨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마음에 두셨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다. 이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모든 민족을 이방인으로 여기며 배척했다. 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도록 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유대사회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율법과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도 바울은 1차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 생각을 바로잡았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며 율법과 성전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못 박았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마음에 맞는 결정이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한다.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의 또 다른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하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 박해의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사도 바울도 체포되어 죽음을 앞두게 되는데 이때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추측하게 한다. 고생만 하다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준비된 면류관’을 기대하며 참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며,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만남 전체의 소감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한다. 열 번째 만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1주간의 삶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튿 번째 만남 이후 어떻게 지냈는가?
복 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삶이었는가, 그렇지 않은 삶이었는가? • 지금까지의 성경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다.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셔서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나라라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모든 인류에게 향해 있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

-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인가?

-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유대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모두 이방인이라고 하여 배척했던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장애물은 유대인을 외에 또

무엇이었는가?

☞ 로마는 A.D.64년 로마 대화재의 범인으로

그리스도인을 지목하면서 로마에 의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사도 바울 역시 체포되어

결국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 감옥에 갇혀 곧 죽음을 직감한 사도 바울은 영혼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 내용은 상식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

- 실제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 준비된 면류관에 대한 기대와 기쁨

- 이러한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디모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나의 마음은 어떤가? • 다음 만남에 대한 구조화 (19~20과 읽기, 시간, 장소)

<표15. 열 번째 일대일(1:1) 만남의 구조>

열한 번째 만남

열한 번째 만남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 1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20과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를 중심으로 구성했다.⁹¹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공식화되자 초대교회는 위기에 빠졌다. 박해를 못 견디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유대교로 복귀하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이단까지 출현하여 초대교회를 뿌리째 흔들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흔들리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단속해야 했는데, 주로 사용한 방법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특히, 사도 바울의 편지는 각각의 초대교회가 돌려 읽으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다짐하게 했다. 편지의 내용은 분명했다.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의 편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사도 요한도 로마의 핍박 속에서 체포되어 밧모섬 채석장으로 유배되었다.

⁹¹ 조병호, *통성경학교 STEP2 마음 훈련*, 104-111.

모든 사도가 그랬지만 요한 역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의 편지는 고난과 절망 속에 고통당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과 고난을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상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강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기대하며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신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중심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3:8-9, 요한계시록 21:5이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8-9)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5)

열한 번째 만남은 마지막 시간으로 전체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기 과정을 정리하는 맥락으로 진행한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고난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입을 위해서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나 이메일, SNS 메시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고통을 당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응원의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극심한 박해 속에서 서로 견딜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했던 가장 좋은 방법이 편지였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소개한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였을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 내려갈 때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과 똑같았을 것이다. 사도 요한의 편지 역시 마찬가지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으로서 완성될 하나님나라다.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나라의 확인이기도 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셨음을 확인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신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열한 번째 만남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1주간의 삶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 번째 만남 이후 어떻게 지냈는가?

복 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시간이다. 혹시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생각나는가?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나 이메일, SNS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 왜 기억에 남았는가?
중심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어떤 내용의 편지였을까? •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내려갈 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 사도 요한 역시 로마의 박해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무엇이였을까? <p>☞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실 하나님나라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았으며, 결국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확인이기도 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표현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기 전 과정을 마친 소감은 무엇인가?
-----	---

<표16. 열한 번째 일대일(1:1) 만남의 구조>

제 V 장

사례 연구

승리부대 승리교회 일대일 양육 선교

승리교회의 상황 분석

대한민국 최전방의 격오지 부대인 승리부대는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 주거 시설 등의 개발이 더딘 곳으로,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매서운 겨울 추위로 유명해서 부대원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고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GP/GOP에서 경계 작전을 현행작전으로 실시하는 최전방 부대이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자연스럽게 용사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부대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승리부대에 소속된 지휘관들은 부대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까지 고민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교회의 활동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좋은 환경이기도 하다. 어둠이 짙을수록 촛불 하나의 작은 불빛도 더욱 선명해지는 것처럼 종이컵에 담은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도 용사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용사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접촉점을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위문 예배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다.

하지만 문제는 용사들과의 접촉 이후의 과정이 미약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효과적인 군 선교에 실패한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일회성에 그친 위문 예배와 간식 공세는 많은 용사를 예배당으로 불러들이는 접촉점이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건강하고 체계적인 양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실제로 용사들의 관심은 모두 휘발되어버렸고,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접촉점을 만들어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제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다. 연구자가 승리교회에 부임한 지 2개월이 지났을 때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모든 대면 활동이 통제되었고, 모든 방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현행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부대의 특성상 승리부대의 지휘관은 더욱 철저한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였다. 교회의 활동은 더욱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교회에서의 모든 소그룹 모임은 금지되었다. 승리교회 예배당은 부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더 더욱 부대원들의 접근과 출입이 통제되었다. 민간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부대의 지침 때문이었다.

부대의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19 상황은 담임목사인 연구자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디모데후서 4:2)을 떠올리며 사역의 방법을 고민하고 기도했다. 이때의 기도와 고민의 결과로 통(通)성경학교를 통한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동안 5~6명 내외로 실시했던 소그룹 모임은 금지되었지만 일대일로 용사들을 만나는 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혹시 있을지도 모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군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자는 외부 출입을 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했다. 모든 것이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승리부대의 지역은 외부와 멀리 떨어진 격오지인 것도 그 요인이었겠지만 감사하게도 2020년 한 해 동안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일대일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승리교회의 ‘일대일(1:1)로 11주 하나님의 마음 읽기’

먼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통(通)성경학교 성경교육을 진행했다. 수요일예배 시간을 활용하여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했다.⁹² 성경공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통(通)성경 강의와 함께 성경일독운동을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승리부대의 직할대 군종병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마음 읽기 프로그램을 일대일로 진행했다. 시간은 토요일과 주일 오후 시간을 활용했다. 토요일 오후 1명, 주일 오후 1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보통은 연구자가 해당 부대에 방문해서 진행했고, 장소는 주로 부대의 예배당이나 부속건물(주로 카페 등)을 활용했다. 예배당 활용이 어려운 경우, 면회실을 활용하기도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민간인의 부대원 면회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했다. KF94 마스크 착용과 거리 유지, 신체접촉 금지, 간식이나 음료수 등 취식 금지, 실내 환기를 위해서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놓는 등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진행은

⁹² Youtube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를 읽고, 해당 성경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마음 훈련 교재는 소책자이고, 양도 적기 때문에 참여하는 군중병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오히려 깊이 있는 묵상을 가능하게 했다. 인도자 입장에서는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토요일과 사역 당일인 주일에 2명의 군중병과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만큼 보람과 기쁨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다.

3개월에 걸친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은 연구자와 군중병 모두에게 만족스러웠다. 참여했던 군중병은 성경의 전체 흐름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큰 감동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참여했던 두 명의 군중병 중의 한 명은, 군 생활 동안에 부대원들과 마찰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던 인원이었는데 일대일 양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대원들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매우 큰 용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자신도 부대원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비판과 원망의 시각이 아니라 사랑의 시각으로 타인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정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준 것으로서 하나님의 마음 읽기 프로그램이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더불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군중병들은 자발적으로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인 하나님의 마음 읽기를 다른 용사신우들을 대상으로 인도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인도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대일 양육을 맡길 수는 없었다.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를

활용한 하나님의 마음 읽기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군종병들을 모집하여 인도자 과정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신우회 교사를 통하여 진행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었겠지만 현역 간부신자 중에서 헌신된 일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현역장병이 현역장병 이외의 군인 가족이나 민간인들을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생각할 수 없는 선택지였다. 오로지 군종병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역이었다. 군 내 코로나19 방역지침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었을 때⁹³를 놓치지 않고 군종병들을 대상으로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다. 시간은 주일 정기에배 시간을 활용했다. 총 10명의 군종병이 참여해 주었고 통(通)성경학교 일대일 양육 하나님의 마음 읽기 인도자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인도자 과정은 3주 과정으로 진행했으며 주차별 진행은 다음과 같다.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강의는 연구자가 진행했으며 일대일 과정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은 이미 일대일 양육을 경험한 2명의 군종병과 함께 연구자가 각각 3~4명씩 맡아서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했다. 무엇보다 군종병들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인도자 과정을 통해서 감동을 얻지 못하면, 참여한 군종병들의 적극적인 일대일 양육의 진행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구 분	내 용
1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 읽기 • 일대일 양육 하나님의 마음 읽기 체험하기 (소그룹 진행)

⁹³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6월 28일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로 결정, 시행하였다. 2020년 6월 당시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소그룹 등 대면예배의 부분적 시행이 가능했다.

2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 양육 소감 나눔 •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특강 (강사 이산호 목사 : 통(通)성경 렉처러)
3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 양육 특강 (강사 이산호 목사) * 일대일 양육의 중요성, 진행 방법, 주의사항 * 일대일로 11주, 하나님의 마음 읽기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

<표17. 일대일로 11주, 하나님의 마음 읽기 인도자 과정(승리교회)의 구조>

인도자 과정에 참여한 군중병 10명 중에 일대일 양육 과정에 인도자로 활동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9명이었다. 1명은 전역을 앞둔 용사로 처음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했었다. 9명의 군중병은 모두 각 부대의 임명직 군중병이었기 때문에 각 부대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대부분 전입 신병들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몇몇은 상병과 병장을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인도자들은 SNS를 통해 진행 상황을 연구자에게 보고해 주었다. 양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놀랐던 것은 인도자 군중병들의 헌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던 것이었다. 임명직 군중병은 보직을 군중병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군중병으로서의 임무까지 수행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헌신을 요구받는 자들이다. 이들의 열정적인 헌신이 더 감사한 이유였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눅10:2)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순간들이었다.

군중병들에 의한 하나님의 마음 읽기 일대일 양육은 11주 과정으로 진행했다. 평소 같았으면 휴가, 외출 등으로 전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코로나19 상황으로 휴가와 외출 등이 통제된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짧지 않은 11주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인도자 군중병들의 사역 보고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대체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큰 감동이었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활동이 용사들의 실제 삶 속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앞서 밝힌 인도자의 관계 회복과 같은 일들이 계속 보고되었다. 7월부터 시작한 군중병들에 의한 하나님의 마음 읽기 양육프로그램은 연구자가 타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된 10월 말까지 20명의 군중병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림3. 승리교회 군중병 집체교육>

선봉대교회의 일대일 양육선교

선봉대교회의 상황 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극복을 위한 대면 예배 금지라는 전대미문의 통제 속에서 군인교회 역시 선교적 어려움을 겪었다. 외부와 단절된, 부대 내부에서의 단체생활을 원칙으로 하는 장병들은 한 사람의 코로나19 확진자만으로도 전 장병이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국토방위라는 준엄한 임무를 담당하는 군(軍)은 어느 곳보다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도록 강도 높은 통제가 불가피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행작전 중인 부대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곧 현행작전 중지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전방 GP/GOP의 경계작전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국토방위에 틈이 생길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일반적인 거리두기 지침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강화된 통제지침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보통 1~2단계 정도 더 상향 조정된 단계의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의 초기에 방역지침을 어긴 일부 종교단체의 집단 종교행사를 통해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사건에 놀란 방역 당국은 종교행사 관련 거리두기 지침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군의 지침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군 내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모든 교회 활동은 금지 및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소그룹 성경 공부, 식사, 각종 모임 등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자와 신자들의 모든 공식적 활동이 금지되었다.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모든 활동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활동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용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이마저도 불가능했다. 용사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은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대 내 시설물 등을 촬영할 경우 군사보안 관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원천 봉쇄하는 차원으로 모든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 국방부에서 배포한 모바일 보안 애플리케이션을⁹⁴ 설치하여 부대 내에서는 카메라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있다. 이것과 더불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까지 이중으로 통제하고 있다. 특히, 카메라의 스티커를 떼는 경우 스티커의 글자가 변형되거나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 스마트폰 반납⁹⁵ 시 적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 보안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군의 특성 상 보안사고와 관련된 징계는 무거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알면서도 위반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한 성경 공부,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가능한 것이라고는 유튜브 등을 통한 일방적인 영상 송출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시간 영상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활용되었으나 미리 촬영한 것을 송출하는 것과 효과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상작전사령부 선봉대교회의 기독 용사들의 모임인 ‘신우회’는 이러한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 담당 교역자가 없었다는 것과 기독 용사들만을 위한 예배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상작전사령부는 각 군단을 지휘, 통제하는 작전사급 부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영관급 이상의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부대의 특성상 지상작전사령부 선봉대교회 역시 장교 신자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2019년 1월 1일에 제1작전사령부와

⁹⁴ 국방모바일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카메라 촬영, 녹음, WIFI, 테더링, USB 기능을 활성화할 수 없다.

⁹⁵ 용사들은 개인정비 시간으로 부여되는 17:30부터 취침점호 시간 전까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작전사령부가 통합된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기 전에는 군종목사 1명이 보직되었을 뿐이었고,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청빙한 민간인 부교역자 3명은, 장교 신자 가정의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 각각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등의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었다. 용사 신우들은 따로 담당교역자가 없이, 간부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다. 2019년부터 군종목사 1명이 추가 보직되어 신우회 예배가 분리되었지만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신우회 예배는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으로 용사들의 부대 밖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부대 밖에 위치한 선봉대교회의 건물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대 안에 있는 군사재판소 법정 건물이나 대강당, 식당 등을 빌려서 예배 장소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음향시설과 악기 등을 활용한 찬양팀 운용이 어려웠고, 휴대용 앰프 등을 활용한 설교 사역만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부임한 2020년 10월 역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지상작전사령부의 용사들은 예하의 전 군단을 포함한 모든 부대의 작전 활동을 통제하는 핵심 시설 내부를 왕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받았다. 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한미 연합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의 진행과 통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행작전에 큰 동공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KF94 마스크 착용, 신체접촉 최소화를 비롯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면 일대일로 만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연구자가 승리부대에서부터 지속해왔던 일대일 제자 양육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히려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그리하여 일대일 제자 양육을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선봉대교회의 ‘일대일(1:1)로 11주 하나님의 마음 읽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 부대의 군중병을 세우는 일이었다. 승리부대에서 군중병들을 통해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경험 때문이기도 했지만, 군중병들을 통해 신우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15년의 군 생활을 통해 터득한 방법이었다. 각 군인교회 신우회의 활성화 정도는 임명직 군중병들의 활동 정도와 정비례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앞서 밝힌 대로, 임명직 군중병들은 ‘군중 행정병’으로 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군중병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신우들이다.

부대에서도 군중병 임명은 평소의 생활과 임무 수행 태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다. 이들은 부대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동료 상담병’⁹⁶으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중병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부대에서도, 교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짧아진 용사들의 군 복무 기간으로 기존의 임명직 군중병이 전역한 이후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어느 부대이든 부임과 동시에 군중병들의 활동 현황을 확인해왔다. 선봉대교회에서도 가장 먼저 각 부대의 임명직 군중병을 임명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이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는, 장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용사들을 파악하도록 했다. 입대 후, 또는 훈련소

⁹⁶ 육군에서는 간부가 진행하는 면담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용사들을 위해 또래 용사들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는 동료 상담병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부대별 임명직 군중병들은 동료 상담병 임무를 맡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용사들로 인정받고,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로 후에 군인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용사들을 신우회 예배에 초청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각 부대의 전입한 신병들을 신우회 예배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훈련소 교회에 출석했던 용사들을 전입한 부대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사역은 오직 용사들 사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에 임명직 군중병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먼저 힘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군중병 대상의 일대일 양육을 진행할 교사를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했다. 선봉대교회는 풍부한 간부 신자들이 있었고, 모두 헌신적으로 섬길 준비가 된 자들이었다. 신우회에는 8명의 신실한 교사가 활동하고 있었다. 교사들을 통해서 양육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교사들을 양육의 인도자로 세우기 위해 인도자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교사들이 신우회 예배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정기 예배 시간을 활용할 수 없었고, 따로 시간을 정해야 했다. 감사하게도 8명의 교사 모두가 토요일 오전 시간을 내주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으로 대면 소그룹 모임 역시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⁹⁷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화면을 통해 4주에 걸쳐 하나님의 마음 읽기 인도자 과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통(通)성경학교 마음 읽기를 통한 일대일 양육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2주는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를 모두 읽게 하고, 개별적인 일대일 교육을 1회씩 진행했다.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모든 교사를 만났다. 토요일 모임 때는 개별적인 일대일 만남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나머지 2주는,

⁹⁷ ZOOM Cloud Meeting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일대일 양육용으로 다시 만들어진 통(通)성경학교 마음 읽기 교재를 통하여 총 11번의 만남의 진행과 흐름, 일대일 양육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4주차 마지막 시간에는 교사 들씩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고 현장 적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신우회의 부흥과 발전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구 분	내 용
1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 읽기 • 일대일 양육 하나님의 마음 읽기 체험하기 (제1과 하나님의 마음)
2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 양육 소감 나눔 •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특강 (강사 이산호 목사 : 통(通)성경 렉처러)
3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 양육 특강 (강사 이산호 목사) * 일대일 양육의 중요성, 진행 방법, 주의사항 * 일대일로 11주, 하나님의 마음 읽기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
4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 양육 실습 • 소감 나눔

<표18. 일대일로 11주, 하나님의 마음 읽기 인도자 과정(선봉대교회)의 구조>

인도자 과정에 참석한 교사들은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를 읽고,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지 몰랐다면 놀라워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내는 통(通)성경학교의 탁월성에 감동했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읽혀지고, 이해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성경을 읽는 재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교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바탕으로 선봉대교회 신우회의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인 통(通)성경학교, 일대일(1:1)로 11주 하나님의 마음 읽기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림4. 부대 내 강당을 활용한 선봉대교회 신우회 주일오전예배>

군중병들의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신우회의 주일 오전 설교를 통(通)성경학교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였고, 일대일 양육에 대한 소개를 포함했다. 또한 군중병들이 소령~대령급 장교 간부인 교사들과의 일대일 만남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교사들에게 전화 통화, SNS를 활용한 소통, SNS 선물 보내기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최대한 친밀감을 높이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난 후에, 임명직 군중병들을 대상으로 한 양육프로그램으로서 일대일로 11주, 하나님의 마음 읽기 과정을 진행했다. 인도자 과정을 마친 교사들은 자신의 신우회 반별 모임의 군중병들과 일대일 양육을 위해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앞으로 진행될 11주 동안의 일대일 양육 과정을 구조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주 동안의 만남을 진행했다. 매일 16시부터 시작되는 일일체력단련 시간이나 수요일 14시부터 시작되는 주간체력단련 시간을 활용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사와 군중병의 친밀감이 깊어졌고, 교사들도 성경공부를 통해 신우들과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감동했다.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를 읽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일대일 양육 시간에 나누는 것이 진행의 기본 구조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현대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재해석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읽는 최고의 기쁨 중의 하나일 것인데 교사와 군중병 모두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통(通)성경학교 일대일 양육 과정에 참여한 군중병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자체를 처음 해 보는 과정이었으며, 지금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넘어서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세계와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게 되었다는 소감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비난의 마음을 초월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소감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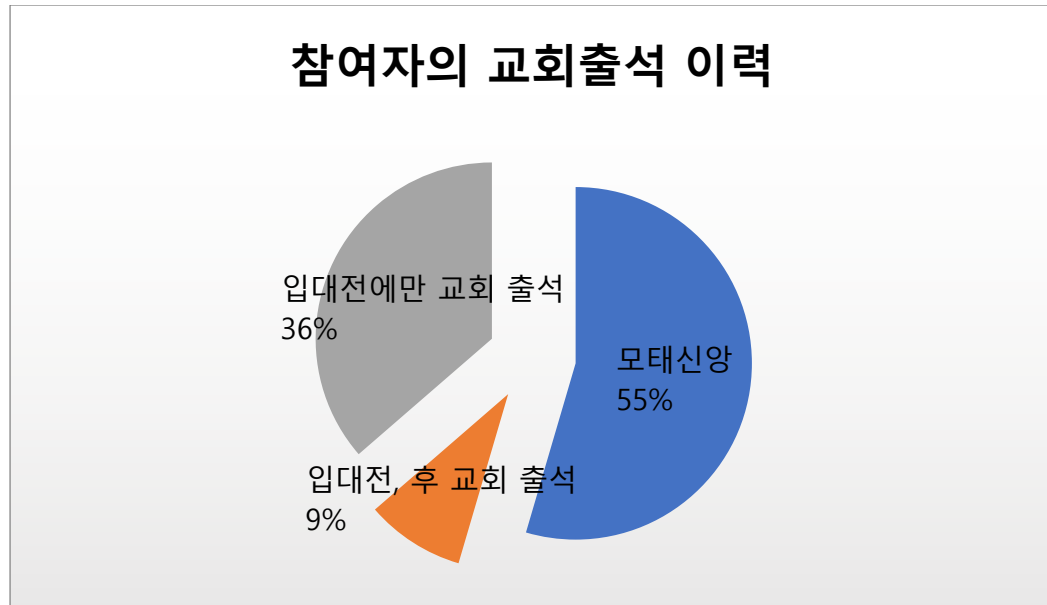
선봉대교회 신우회의 하나님의 마음 읽기 프로그램은 교사들에 의해서 21년 12월까지 3개월씩 2회기가 진행 완료되었다. 또한 임명직 군종병들에 의해서도 진행되어 4명의 군종병이 일대일 양육을 진행했다. 현재 교사들과 임명직 군종병들이 함께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과정에서 교사들을 비롯하여 참여한 군종병과 용사들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응 및 평가

설문 결과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을 기초로 한 ‘일대일(1:1)로 11주, 하나님의 마음 읽기’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선봉대교회 신우회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한 22명의 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⁹⁸

⁹⁸ 설문은 2021.11.14. 주일예배 시간을 활용하여 참여자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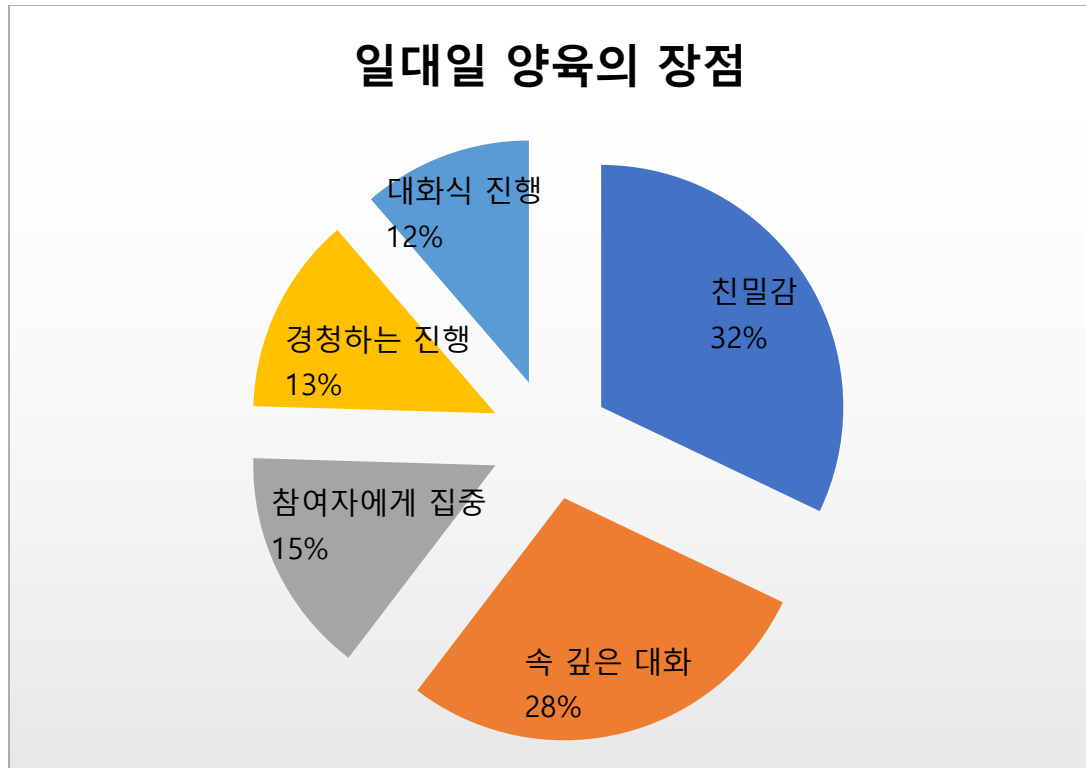
<표19. 선봉대교회 신우회 일대일 양육 설문 참여자 현황>

22명 중 14명은 입대 전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했고, 군인교회에도 꾸준히 출석했던 용사들이었고, 8명은 입대 전에 교회에 출석한 경험이 있지만 입대 후 군인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용사들이었다. 설문조사 후에 군인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일대일 양육에 참여했던 8명의 용사를 대상으로는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일대일 양육에 참여했던 8명의 용사는 군인교회에 계속 출석하여 찬양팀, 예배 준비팀 등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군인교회 출석과 봉사로 이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읽기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의 외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이 교회를 떠났던 용사들을 군인교회로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참여자들이 생각한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의 강점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17명) 교사들과의 친밀감은 군인교회와 신우회예배에 대한 친밀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것은 <표3>에 정리한 군인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친밀감의 부족)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15명)이 뒤를 이었다. 보통은,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대 내에서의 자신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이 군인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 몰입했던 군 선교의 개선 방향이 질적인 성장이라고 한다면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이야말로 계속해서 적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군인교회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 강의식, 주입식이 아닌 참여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대화형의 진행방식도 일대일 양육의 장점이라고 응답했다. 명령이나 지시 위주로 움직이는 군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집중해주는 경험은 용사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주입식, 강의식 교육 방식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 표20.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의 장점 설문 결과 (중복 답변 허용) >

가장 감명 깊었던 점은 주관식으로 개수에 상관없이 작성하도록 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순위	내용	비율
1	• ‘하나님의 마음’ 이라는 관점으로 전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86.3%
2	• 성경이 재밌다. 정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81.8%
3	•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77.2%

4	•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용서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	72.5%
기타	• 교사와 친밀해져서 좋았다.	50%
	• 일대일 양육 인도자로 봉사하고 싶다.	31.8%

< 표21. 하나님의 마음 읽기의 가장 감명 깊었던 점 (주관식) >

가장 많은 응답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하나의 관점으로 읽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19명)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STEP 2) 과정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과정의 장점이 일대일 양육프로그램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성경을 읽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한 참여자들은 대부분 성경을 읽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된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많은 반응이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고, 정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다. 22명 중 18명이 같은 대답을 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읽기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묵상하는 11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척 친밀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17명)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과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먼 느낌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친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으며, 멈췄었던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였다. 이것은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응답이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와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함을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응답자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슬픔 -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패턴의 방점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에 있었다.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며,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타인의 범위에는 부조리한 모습으로 비난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도 포함되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들은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 평가 부분에서도 밝히겠지만 참여자들의 신앙의 발달단계가 상향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추가 인터뷰 결과

선봉대교회 신우회에서 진행한 하나님의 마음 읽기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한 22명 중에 8명은, 입대 전에 교회에 출석했지만 입대 후에는 출석하지 않은 용사들이었다. 이들도 설문에 응답했지만,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추가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재밌는 것은 이들이 교회에 발길을 끊은 이유로 밝힌 두세 가지의 이유가

모두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이것들을 몇 가지로 묶어볼 수 있었다. 먼저는,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믿어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많은 질문이 생겨났으나 정작 교회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다루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계속되는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교회에 대한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고 한다. 목회자들의 성 추문, 교회의 재정 비리 등과 같은 매스미디어 속의 뉴스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그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도 그랬겠지만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했다. 즉,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언급한 것이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된 원인을 요약해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감,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일대일로 11주, 하나님의 마음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일대일 양육프로그램 속에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앞서 정리한 전체 설문 결과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됨으로써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값진 수확이었다.

인터뷰를 진행한 8명의 용사 중의 두 명은 입대 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실망한 경험을 보고했다. 두 명 모두 반드시 응답되어야 하는 기도

제목⁹⁹이 있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교육 속에서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들의 문제는 감정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감으로 연결되었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었다. 당연히 입대 후에도 군인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봉대교회 신우회에서 진행하는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많은 회복이 일어났다고 고백했다. 같은 부대의 임명직 군중병에 의한 일대일 양육이었는데 평소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공부를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 읽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었고,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보고했다.

교류분석 심리학자 이영호와 박미현은 그들의 책, 「관계의 미학, TA」에서 “내면의 어린아이가 드러나고 내가 그 아이로부터 벗어나면 어린 시절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 회복의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를 힘들게 한 상대방에 대한 힘든 용서의 과정이 필요하다.”¹⁰⁰ 게슈탈트 심리치료 기법 중의 하나인 ‘빈 의자 기법’은 치료 현장에 없는 용서의 대상이 빈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쏟아냄으로써

⁹⁹ 한 용사는 어머니의 암 치료, 나머지 한 용사는 대학입시 문제였다.

¹⁰⁰ 이영호, 박미현, *생활 속의 교류분석, 관계의 미학 TA* (서울: 학지사, 2011).20.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이다.¹⁰¹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이 교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회복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라는 일종의 ‘빈 의자’에 하나님을 앉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래 묵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봄 햇살에 눈이 녹듯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계속되는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보도된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한다. 부대원들과 함께 교회의 부정적인 뉴스 보도들을 보게 될 때마다 받게 되는 수많은 질문에 대답이 궁색하여 난감했을 때가 많았다고 한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정능력을 상실한 곳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을 통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게 되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용서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이었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본인의 시각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난의 마음이 아닌, 기도의 마음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인터뷰 내용 역시 매우 흥미로웠다. 8명 중의 5명은 입대 직전까지 교회에 출석했던 자들이었다. 입대 후에 군인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로 비슷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군의 시스템과 문화 속에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이 매우 이질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새롭게 경험하게 된 군대 문화 속에서

¹⁰¹ Ibid., 21~22.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부대 동료들에게 이질적인 이미지를 주면서까지 굳이 군인교회에 출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임스 파울러가 이야기한 3단계의 신앙발달을 보이는 20대 초반의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의 모습과 일치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매우 놀랍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들이 기독교와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부정적인 질문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물론 정확한 답을 찾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자체가 수많은 질문의 답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릴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연구자로서도 매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연구자는 이들의 신앙 성장을 목격하면서 이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들었다.

이런 모습들은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용사들이 제임스 파울러가 말하는 신앙발달 3단계에서 4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순응적이고 의존적인 3단계 신앙발달의 특성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한 사명감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모습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의 마음은 기도해야겠다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변화되었고, 흐릿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더욱 선명해졌다.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는 ‘반성적 신앙 단계’로의 분명한 진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모든 것은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과정을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실시한 일대일로 11주, 하나님의 마음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3단계 신앙발달 수준의 용사들이 4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군인교회가 일대일 양육선교를 통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냄으로써 찬란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제 VI 장

결 론

요 약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양적 성장 일로로 치달았던 지금까지의 군 선교 현장을 반성하고, 신앙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선교의 방안으로 군인교회의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했다. 서론과 2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비전2020 군 선교 전략의 실패와 원인을 제시했으며 국방개혁2.0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비전2030의 양육중심 선교 전략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춘 새로운 양육 방법으로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과정을 일대일 양육용으로 재구성한 프로그램을 그 대안으로 제안했다.

3장에서는 회심을 중요시했던 초대교회의 세례자 양육과정을 예로 들어 양육 중심의 선교 방법의 근거와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일대일 양육을 통한 신앙의 성장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발달 이론을 적용했다. 제임스 파울러는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발달이론과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을 기초로 신앙의 발달단계 이론을 제안한 미국의 종교심리학자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3단계인 ‘인습적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단계인 4단계, 즉 ‘반성적 신앙 단계’로의 이동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서는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3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모두 모이게 되는 대한민국의 군대는 3단계에서 4단계로의 이동이 가능한 가장 적합한 장소임에 틀림이 없다. 입대한 기독교 청년들이 군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부모와 교회에서의 받았던 신앙교육에 대해 회의를 품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는 순간이 4단계의 신앙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됨을 논증하였다. 4단계 신앙발달 단계로의 진입을 통해 최근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회와 사회와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미래 한국교회의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질 기대를 제시했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기술하였던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으로서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교재를 일대일 양육교재로 재구성하여 제작한 ‘일대일(1:1)로 11주, 하나님의 마음 읽기’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인도자 과정을 포함하여 첫 만남에서부터 11번째 만남까지 핵심 내용과 주제, 대화의 내용을 포함한 진행 교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중점을 두고 생각한 것은 통(通)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3단계의 신앙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는 군의 기독교용사들이 그동안의 주입식으로 학습된 신앙에서 탈피하여 비판적 성찰과 검토를 통해 재정립된 새로운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폴 리쾨르(Paul Ricoeur)의 Narrative Identity 이론을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이끄는 데 최적의 프로그램이 바로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과정이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교회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음으로써 지금의 교회와 인류, 나아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더욱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장에서는 실제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승리교회와 선봉대교회의 신우회에서 진행했던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과정을 활용한 양육선교의 사례로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책임감 있는 일꾼을 양성할 수 있는, 질적 성장 중심의 군 선교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결론과 제언

앞으로의 군 선교 방향은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을 첫째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일대일 성경 공부는 이러한 상황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인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군인교회는 일터의 구성원과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교회의 소그룹에서 공유하게 되는 개인적인 고민과 문제들이 부대 내에 소문으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소문은 부대 내 자신의 평판으로 이어져 간부의 경우 진급에, 용사의 경우 병영생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활동이 피상적인 수준으로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간부와 용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의 적용이 당장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양육받는 용사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 두 제자가 잘 훈련되었을 때,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로 3천 명씩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에 기대어 보면,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해 잘 세워진 한 사람의 용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선교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연구자가 제안하는 군인 교회의 선교전략은 초대교회의 양육적 신자화 교육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에서는 후견인들에 의한 헌신적인 양육을 통해 잠재적 신앙인이 세례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후견인들은 잠재적 신앙인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는데 이를 통해 더욱 깊은 내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군인교회에서도 헌신적인 인도자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일대일 양육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과정을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한 것이다. 통(通)성경학교 마음 훈련 과정은,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지치고, 기독교 신앙에 회의를 품고 있는 용사신우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묵상하게 함으로써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한다. 비탄의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일대일 만남을 통해 인도자와 양육받는 자가 나누게 될 대화의 내용, 즉 성경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기에 군 선교 사역자라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군 선교 현장인 대대급 교회의 사역자들과 군종병들이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사단급 부대의 군종목사를 통해 여단급 군종목사, 군 지원 민간성직자(목사), 신우회 교사, 군종병들을 인도자 과정으로 교육시키고, 일대일 양육을 경험하게 한다면 미래의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내실 있는 교회의 일꾼을 양성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通)성경학교 성경공부를 바탕으로 한 일대일 양육프로그램은 군인교회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선교 프로그램이라고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다. 증인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단지 전하면 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또는 전도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매우 어려운 ‘일’ 이 되고 만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학습된 것이거나 익숙해서 새로울 것이 없는 어떤 것이 된다면 그것은 선교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역사 속에서도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사회에서 온전한 신앙고백이나 회개 없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거듭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다. 사회의 권력자와 교회의 권력자가 동일한 상황이 되었고 이 권력자들로 인해 교회는 부유해졌으며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철옹성처럼 막강해졌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렸다. 교회가 온갖 타락과 죄악으로 가득 찬 암흑기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양육선교의 전제조건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번역 서적

- Alan Hirsch, 잊혀진 교회의 길. 오찬규 옮김. 서울: 도서출판 아르카, 2020.
- Alan Kreider, 회심의 변질. 박삼중 외 3인 역. 충남 논산: 대장간, 2020.
- David Kinnaman, Gabe Lyons, 나쁜 그리스도인. 이혜진 역. 서울: 살림, 2008.
- James W. Fowler, 신앙의 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 Leonard I. Sweet, 넋지 전도. 유정희 역. 서울: 두란노, 2014.
- Michael Frost,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지성근 역. 서울: IVP, 2009
- O'Brien, Peter T, WBC 성경주석: 골로새서·빌레몬서. 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 2008
- 류쉬안(劉軒),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원녕경 역. 서울: 다연, 2019

한국어 서적

- 김형국.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 경기 파주: 비아토르, 2018.
- 김형국.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경기: 비아토르, 2019.
- 김형국.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워크북. 경기: 비아토르, 2019.
- 김형국.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 경기: 비아토르, 2021.
- 김형국.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 워크북. 경기: 비아토르, 2021.
- 박충. 육쟁이 예수. 서울: 살림, 2010.
- 이영호, 박미현. 생활 속의 교류분석, 관계의 미학 TA. 서울: (주)학지사, 2011.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9.
- 조병호. 통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9.

- 조병호. 통통성경학교 STEP2 마음훈련,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 1. 서울: 통독원, 2017
-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 2. 서울: 통독원, 2017
-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어드밴스드 북 3. 서울: 통독원, 2017
- 조병호. Family School을 위한 통통성경학교 통성경포물라. 서울: 통독원, 2019.
- 조병호. 통하는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서울: 통독원, 2018.
- 차성진.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경기: 아바서원, 2020.

논문, 잡지, 기타 간행물

- 강미랑. “리피르의 Narrrtive Identity이론의 소그룹 성경공부에서의 적용.”
한국개혁신학 vol. 29(2011), 311-340.
- 권택조. “복음주의적 기독교교육학의 관점에서 본 파울러의 신앙발달 이론에
관한 연구” ACTS 신학과 선교 제6집(2002), 265-284.
- 김 신. “서구제국주의 선교의 인식론적 한계비판과 공존의 선교 가능성
모색”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9.
- 김진영. “불통을 넘어 소통하는 기독교를 향해”, 기독교일보, 2016년 9월 1일자, 7면.
- 김택조. “이야기를 통한 성경과 교리 교육.” 박사학위 논문, 드류대학교
신학대학원, 2020.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906-01, (2018).
- 성창환. “파울러의 결합적 신앙을 통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주관적 상대주의
극복 제안.” 서울장신논단 27집(2019), 227-249.
- 손동준. “한국교회가 그렸던 2020년... 얼마나 실현됐을까.” 기독교연합신문, 2020년 1월
12일자, 6면.

오상영. “파울러의 구조주의적 신앙발달 모형의 한계와 수정.” 기독교교육논총 제17집(2008), 249-277.

이사야. “강원도교육청, 특정종교 편향 교육 교사 징계 논란.” 국민일보, 2017년 1월 17일자, 25면.

이은실. “대학생의 신앙인식 변화단계 및 관련요인에 대한 탐색.” 상담학 연구 Vol.3 No.1(2002), 23-46.

주연종. “비전2020실천운동사역의 선교적 평가와 전망.” 한국군선교신학회 논문집<19>(2020), 15-28.

웹사이트

<http://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88328>.

http://gapck.org/sub_01/sub02_02.asp?menu=menu2

<http://v2020.or.kr/home/meak2020/>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San Ho Lee

Place and Date of Birth: Daejeon, South Korea, Aug. 19, 1979

Parent`s Names: Joocheon Lee, Keumsook Kim

EDUCATIONAL INSTITUTIONS

Name	Address	Degree	Date
Chung-nam High School	171, Munjeong-ro,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Dipoloma	Feb 10, 1998
Prebytera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353, Kwangjangdong, Kwangjingu, Seoul, South Korea.	Th. B	Feb 7, 2002
Prebytera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353, Kwangjangdong, Kwangjingu, Seoul, South Korea.	M. Div.	Feb 8, 2007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an Ho Lee
Name typed
Feb 20, 2022
Date